

대한노회, 웨신총회 탈퇴선언

노회원 전원 탈퇴선언, 제주도로 하계수련회 떠난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7월 12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소재(주사랑교회)본당에서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서기 박민규 목사의 진행으로 1부 예배에 회의록서기 박명자 목사가 기도율,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디모데후서 3:12~15절을 “경건한 자들은 모두 박해 받는다”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했다.

이어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사회, 이창우 목사의 기도으로 2부 임시노회가 개최되어 진행된 회부에서 서기 박민규 목사의 경과보고의 정점은 임시노회의 소집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대한노회 노회장과 노회원 전원

뜻을 같이하고 만장일치 웨신총회를 떠나자는 성명을 낭독하고 탈퇴를 선언했다. 또한 노회원 단합과 새로운 총회의 가입을 위해 하계수련회를 제주도(8월 26~28일)로 결정지었다.

그러면서 노회는 33가지의 성경해석이 왜곡되었다며 총회에 제출

한 진정서 내용과“산 자의 하나님”(장한국 목사 저)이란 설교집 각 장절을 저녁 늦은 시간까지 대조를 해 보았지만, 오히려 진정서의 내용과는 달랐으며, 성경해석상 우려할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웨신총회는 장한국 목사의 저서“산자의 하나님”의 내용과 총회

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 대해 신학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해 웨신총회를 떠났지만 장한국 목사는 물론 소속된 노회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의 준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9·10면 참조〉



한기총 이대위, 소환자 불응 2차 소환요구

진용식, 신현욱, 강신유 목사 등 출석거부 사유서 제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위원장 이건호 목사)가 7월15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6-06차 이대위는 회의를 진행하고 진용식, 신현욱 강신유 목사 등에게 소명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출석거부로 불발됐다. 아울러 서기행, 김동권 목사의 참고인 소환 역시 당사자들의 불참으로 결국 조사는 파행되었다. 한기총은 다시 이들에게 2차 소환통보를 집행하고 7월31일에 회의를 다시 열게 된다.

이날 관심을 끌었던 안식교 출신 진용식 목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한기총 이대위에 제출했다. 진목사는 사유서에서 시일이 촉박하게 일방적으로 정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또 조조사 소명을 받기도 전에 한기총이 “이단에서 나온 후 검증을 받지 않았다. 병적기록부의 정규학력이 초등 중퇴로 되었다.” 등을 발표한 것은 명예훼손이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이단 집단에서 회심하고 정통교회에 가입할 때 이미 철저한 검증을 마치고 가입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목사는 ‘본인에 대

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면 본인이 속한 예장 합동측 남중노회에 검증을 입힘에 주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한기총 이대위가 본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결정하거나 발표할 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에 제소할 것을 미리 통보한다.’고 했다. 또한 진목사는 이같은 내용증명을 이미 이대위 위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출석요구를 받은 강신유 목사는 사유서를 한기총 이대위에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했고, 사유서에서 본인은 이단출신이 절대 아니라며 이를 증명하는 제 증거서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강 목사는 한기총 이대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허위 사실 유포 금지 및 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촉구했다. 강 목사는 ‘본인을 이단출신이라고 허위사실을

게제 한 것, 신현욱이 자신을 남중노회에 가입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 본인이 이단출신을 몰래 신분 세탁을 위해 공산대에 입학시켰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 등, 이러한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공개할 것과 한기총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성명서를 삭제하고, 발표한 성명서를 취소하고, 그리고 반드시 취소발표 후 10일 이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요구했다.

또 이미 한기총 기사가 유포된 사이트, 게시판, 카페, 블로그를 일일이 찾아서 삭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7월22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의법 조치할 것을 통고하고 해명이 없을 시 사법기관에 고소할 것과 본 내용을 일간지나 인터넷에 해명자료로 공개할 것을 통고했다.

이에 한기총 이대위는 대책회의를 열고 조사대상자와 참고인 모두에게 2차소환을 하기로 했다. 당초 누구를 정죄한다기보다 본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한 만큼 당초 취지대로 시행하여 당사자들이 정정당당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는 방침이다.

미기총 제15회 총회, 대표회장 임형태 목사 선출

한교연, 세기총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설교“함께하는 사람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KCCA, 미기총) 제15회 총회가 지난 7월 9-10일에 덴버 중부장로교회(최훈진 목사 시무)에서 개최돼 대표회장 임형태 목사(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연합장로교회)를 선출하는 등 임원을 개선했고 미주 기독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힘쓰기로 다짐하는 한편 신천지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 미주와 한국교회에 경각심을 갖도록 계도에 나가기도 했다.

회원교단 대표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는 한기총 목사(LA 은혜한인교회)의 기도, 박위

근 목사(한교연·세기총 대표회장)의 ‘함께한 사람들’ 제하의 설교에 이어 ‘미주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김바울 목사),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하여’(고시영 목사),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하여’(홍찬혁 목사), ‘미주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하여’(최낙중 목사) 각각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를 마치고 황의춘 목사의 사회로 개최된 총회는 조도식 목사(해의합동 총회장)의 기도, 서기의 회원점명과 개회선언, 사업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를 채택하고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새 회장

단을 인준했다. 이어 임원선출 및 신규임원 교체식을 갖고 신년도 사업과 신안건을 신임위원회에 맡기고 폐회했다.

총회에 이어 7월 10일 오후 7시에 같은 장소에서는 지난 3월 8일에 기독교회관 2층 조예강당에서 전세계 90개국 한인기독교교연합단체 대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된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창립 감사예배가 열렸다.

황의춘 목사(세기총 상임회장)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이병용 목사(재일한국기독교성교협회 회장)의 기도, 장석진 목사(미기총 중

회장)의 경과보고, 고시영 목사(한교연 교회일치위원장)의 설교, 송정명 목사(미기총 중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임원 명단〉 대표회장 임형태 목사,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 공동회장 서부 한기총 목사(수석), 남부 정인수 목사, 동부 김종덕 목사, 중부 유영일 목사, 사무총장 황경일 목사, 총무 심평중 목사, 서기 윤사무엘 목사, 부서기 송성섭 목사, 회계 주성철 목사, 부회계 민경철 목사(분과위원장)교회일치화윤리위원회 최낙신 목사, 신학연구위원회 정성목 목사, 노후대책위원회 조도식 목사, 상호찬목위원회 김중훈 목사, 선교정책개발위원회 강승호 목사, 이민교회성장연구위원회 장성민 목사, 사회봉사참여위원회 김용배 목사, 2세목회자양

성위원회 박용덕 목사, 남북선교협력위원회 정영현 목사, 대외협력위원회 박현성 목사, 북한교회재건위원회 고택원 목사, 정의사회평화인권위원회 조일구 목사, 조국통일위원회 박찬순 목사, 이단대책위원회 이종명 목사, 전국평신도지도자협의회 김일 장로,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정경희 권사, 전국기독교실업인연합회 유지선 장로, 전국기독교문화예술위원회 이다윗 목사, 고문 1대 박희소 2대 방신학 3대 심항구 4대 나윤내 5대 서삼정 6대 방지각 7대 정인찬 8대 김택용 9대 신현국 10대 한기찬 11대 이영섭 12대 장석진 13대 송정명 14대 황의춘 자문위원 강인덕 김남수 김도석 김득현 김만우 김선배 김영길 김용주 김인식 김정국 김종원 김진태 김해중 김성용 노재상 박영창 박재영



박희민 변영익 송영성 서재승 신성국 신의철 심관식 심만수 안수훈 안재도 오관진 윤명호 이기홍 이문구 이성재 이영재 이성근 이승만 이승태 임동선 임동하 장영춘 전영현 정구훈 정영서 정지환 조덕현 조석환 조천일 지선목 천방욱 최나신 최대원 최영환 최훈진 한재홍

현인덕 황수봉 황준석, 이사장 최대영 장로, 감사 이재호 목사, 자문변호사 황삼열 목사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명범 목사 신학사상검증 보고서

국제크리스천학술원(CAI)은 2013년 3월 5일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의 설립자이자 레마성서연구원 대표인 이명범 목사로부터 자신의 신학 사상에 대한 검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국제크리스천학술원은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이명범 목사의 신앙과 신학 사상을 면밀히 검증한 결과 이단성이 없으며, 전전한 신앙과 신학 사상을 갖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한국 교회와 교계에 알리는 바이다.

1. 이명범 목사의 신학 사상은 이단성이 없으며,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이고 선교적인 내용들이었다.

2. 이명범 목사는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이 초보적인 평신도 시절에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은혜 받은 말씀들을 전하다가 전문적인 신학 용어의 선택이나 해석이 부족한 점은 다소 있으나 이단이 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

3. 이명범 목사는 성경을 사랑하여 읽고 또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초기에 다듬어지지 않은 설교로 인해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되자 문제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정통주의 교리를 믿으며 전하고 있다.

4. 이명범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데 앞장선 최삼경 목사는 2012년 12월 2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교회사 최악의 이단자이자 신성 모독자이며 이단 조작자”(국민일보, 2012년 12월 21일, 금, 40쪽)로 밝혀졌고, 이명범 목사는 예장통합 제77차 총회(1992년) 전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청원하려 했으나 목살 당했으며,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상담소장이었던 최삼경 목사의 조작과 왜곡된 주장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한 예장통합의 이단 규정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에 예장통합의 이단 정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이명범 목사의 신학 사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본인이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으로 바르게 지도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을 폐기하고 바른 신학 사상을

갖게 된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단 정죄를 해제해야 마땅하다.

6. 예장통합 총회가 채택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 보고서 자료는 이명범 목사의 신학을 검증함에 있어서 대체로 조작, 왜곡, 편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폐기 처분된 1984년의 자료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장통합 총회의 이단 정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7.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신학 검증으로 볼 때, 이명범 목사와 레마성서연구원과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일교회와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는 이단이 아니다. 한국 교회와 교계는 이명범 목사의 이단 정죄를 해제함으로써 이명범 목사가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복을 전도와 세계 선교에 전력함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주후 2013년 6월 일

국제크리스천학술원(CAI) 신학검증위원회

위원장 나재운 박사(전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장)
위 원 강영선 박사(전 한신대 교목실장)
고종권 박사(현 라이프신학원 부총장)
김경직 박사(현 기독교시인연대 대표)
김항안 박사(현 한국교회정보센터 원장)
나용화 박사(전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도한호 박사(전 침례교신학대학교 총장)
손석태 박사(전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안춘근 박사(전 나사렛대학교 대학원장)
예영수 박사(현 국제크리스천학술원 원장)

해오름교회, 서울성시화운동 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수도 서울성시화운동본부 설립을 위한 설명회 및 발기인 총회가 18일(목) 오후 4시 관악구 해오름교회 (담임목사 최낙중)에서 서울 25개 구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드리는 예배는 최낙중 목사(해오름교회, 예장백성증경총회장)의 사회로 최명우 목사(순복음 강남교회, 한기총 총무)의 대표기도, 김홍석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의 특주, 정대준 장로(서대문구 신촌장로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전병금 목사(강서구 강남교회, 한목협 직전 대표회장)가 사무엘상 7장 5-11절을 본문으로 '미스바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특별기도 순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는 강동인 목사(관악구 지구촌



순복음교회, 호산나신교회 대표회장), '한국 교회를 위하여'는 최학규 목사(노원구 빛과 소금교회), '2013서울국

제성시화를 위하여'는 김영수 목사(마포구 신수동교회), '서울시를 위하여'는 김철해 목사(햇볼트리탄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각각 인도했다.

이날 축사는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장관, 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격려사는 양인평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가 담당했다. 이어 이성일 목사(구로구 반석교회)의 구조제침에 이어 박현모 목사(구로구 대신교회, 기성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설명회는 두상달 장로(기아대책 이사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리는 '2013서울국제성시화대회'에 대해 소개하고, 아울러 정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의 성시화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합심기도로 마쳤다.

기독교 탈북자들 1000일까지 릴레이 시위다짐

탑골공원에서 집회열고 거리로 나선 기독교 탈북자들

탈북자 복송반대 운동 500일째를 맞은 기독교 탈북자들이 항의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탈북자강제복송반대국민연합' 기독교 탈북자 등 100여명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 500일 기념 통일방상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 주민 구원을 위한 거리기도회 및 시위를 가졌다.

비가 내리에도 열린 행사는 차분하게 진행됐다. 국경을 넘다 쓰러져간 탈북자들에게 대한 묵념을 할 때에는 행사

장 분위기가 숙연해졌고 탈북 여성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실정을 간증할 때 일부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적시곤 했다.

지난 17개월간 이들은 천막농성과 파켓시위, 항의집회, 기도회 등으로 탈북자 복송반대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특히 서울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벌인 항의 기도회와 금식기도는 국내·외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민연합은 지난해 2월 23일 창립됐

다. 탈북한 이애란 북한전통음식연구원장이 릴레이 시위 및 금식기도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기독교 탈북자들은 중국 대사관 앞과 탑골공원 앞 등지에서 릴레이 시위 겸 금식기도를 드리고 있다. 릴레이 시위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계속되고 있다.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땐 "북한을 자국하면 안 되니 시위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이도 있었고, 심지어 "탈북자는 북한으로 돌아가라"며 파켓을 발로 찬 경우도 있었다.

이날 거리행사는는 탈북 여성의 플루트 연주와 개성약과와 해주비빔밥 등 북한음식 전시회 및 시식회가 진행

됐고 정·교계 인사들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 통일을 기원하는 '과줄'(한국 전통과자의 일종)탑 절단 순서로 끝났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나던 한 가족은 과줄 탑 앞에서 합심기도를 드리고도 했다.

한 탈북자는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중국이 강제 복송하도록 방관하느냐"며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복송 저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탈북자는 "북한이 탈북자들에게 돈 5000만 원과 평양에 아파트를 준다며 다시 돌아오라고 회유하고 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기독교 탈북자들은 100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계속한다는 다짐이다. 또 '책무기 개발을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북한 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도 촉구할 예정이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인: 피종진목사 이장: 장기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장기환목사

전국 23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와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원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선명의 약속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 곳에는 지옥행이 있느니라'(마 3장 17절)			
예배 안배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신앙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전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유동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케빈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성령의 불길로 세계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서교회**
KYOUNG SEO PRESBYTERIAN CHURCH SINCE 1982

지나온 30년 그리고 또 다른 한 걸음

2013 축복의 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행복한 우리



당회장 홍재천 목사



홍성원 담임목사

예배시간	부서		장소
	1부	주일 오전 7시	송로분당(전미)층
주일 예배	2부	주일 오전 9시	예루살렘성전
	4부	주일 오전 11시30분	(이후)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수요일 저녁 8:30분	송로분당(전미)층
	금요 찬양	금요일 저녁 8:30분	예루살렘성전(이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매일 새벽 5시	송로분당(전미)층
	영양부	영양부	가톨릭(전미)층
평신도 기도회	영양부	주일 오전 9시	가톨릭(전미)층
	영양부	영양부	가톨릭(전미)층
청소년부	제1청소년부	주일 오전 9시	송로분당(전미)층
	제2청소년부	주일 오전 9시	송로분당(전미)층
주일 전야제	청년부	주일 오전 11시30분	비전 야구장(이후)
	청년부	주일 오전 11시30분(이후)	송로분당(전미)층

● (421-80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1번지
● 전화 : 032) 684-8241-5 Fax : 032) 684-8240 ● http://www.kyounseo.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YANGGIROUN CHURCH



표어 이 전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막2:7)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섬기는 분들

전임전도사 : 이귀선(사론) 전도사 : 험시바
선교사 : 전승주, 손호차(태국지암이아)
장로 : 최문호, 유봉철
안수집사 : 송경현, 배하성, 정대봉
성가대장 : 정대봉
성가지휘 : 이웅경
피아노 : 배민지
드럼 : 유혜란 김효정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2부 찬양예배 오후 1:30
사랑 애잔 교제시간
수요기도예배 오후 7:30
영락원예배 오후 9:00
목요치유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예배 오전 09:30
청년1,2팀예배 오전 09:30
주일학교예배 오전 09:30
새벽기도회 월~목
1일월삭 예배 오전 05:00
1기 제자교육 월화금요일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학동 502-1 향기로운빌딩 9층
☎ 032)814-7720, 팩스 032)714-3131, 010)4274-3330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영복샘전인치유센터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도의 노회장
- 영복샘교의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귀어씨는 고통에서 고침받은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거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중 고침받은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은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은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은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승리로 100-18(신현동)
☎ 053-752-8238 010-8537-8291

국내 최초, 크리스천 댄스 오디션「점프」개최

CTS기독교TV 주최, 8월 23일까지 접수

최근 수년간 전국적 화제를 낳고 있는 예능 오디션 열풍이 교계 방송까지 상륙했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의「CTS라디오조이」가 주최하는 국내 최초 크리스천 댄스 오디션인「CCD 빅! 오디션 점프(이하 CCD 점프)」가 8월 23일 참가자 접수마감에 이어 9월 7일과 21일, CTS 아트홀에서 예선과 본선을 진행한다.

오디션 명칭의 'CCD'란 'Contemporary Christian Dance(현시대 크리스천 댄스)'의 줄임말로 참가자들은 '춤추며 예배하고 춤추며 복음을 전하라!'는 신앙적 주제가래 워십댄스는 물론, 갈고 닦은 비장의 춤실력을 겨룬다.

참가 대상은 교회 워십댄스팀과

동아리 댄스팀을 모두 포함하며, 연령기준도 중고생부터 청장년까지 제한이 없다. 참가팀들은 예선에 돌입하기 전 클리닉스쿨을 통해, 국내 최고 CCD 사역팀인 PK(Promise Keepers)로부터 일대일 가르침도 받는다. PK 사역팀은 이번 행사에서 심사위원과 참가자 멘토로 활약한다.

이번 행사를 담당하는「CTS라디오조이」측은 "CCD 점프가 여름 수련회와 캠프를 위해 춤을 연습한 많은 팀들에게 좋은 기회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에너지와 욕구를 마음껏 발산하는 건전한 문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TS 감경철 회장이 "최근 개국 1백일 만에 다운로드 6만 건을 돌

파한 앨라디오「조이」가 더욱 알려지기를 희망하고, 참가자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춤추고 예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디션 점프의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원, 아이패드 미니 등이 수여되고 PK와 함께 사역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CTS 내 영혼의 찬양, CTS라디오조이(앨라디오) 및 CTS Y(엠펙TV) 청년채널 프로그램의 출연제의를 받게 된다.

오디션 점프의 인터넷 접수는 「CTS라디오조이」앱 실행 후 이번



트란 검색, 가티플 예배, 홈페이지(www.ccdjump)에서 진행 중이다. 문의 전화 02-6333-2580.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원내 대변인을 즉각 사퇴시키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변인의 원색적이고 추악한 발언에 대해 분을 금할 수 없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원내 대변인을 즉각 사퇴시킬 것을 촉구한다. 홍대변인의 막말은 비난의 수준을 넘어서는 모욕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모독과도 같은 것이다. 제1야당의 원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자질이라면, 민주당 전체의 수준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한 개인을 넘어 국민 전체를 대표하며, 나라의 얼굴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망언을 그것도 제1야당의 원내 대변인이 내뱉는다는 것은 국민의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슨 의도로 이 같은 막말을 통



홍재철 목사
한국총 대표회장

해 국민 전체를 욕되게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막말로 서슴없이 쓸아낼 수 있는 막말 정당인가? 개인 간의 다툼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모욕은 절대 삼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하물며 공당의 원내 대변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향해 금도가 없는 표현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발언에 대한 사죄나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

적으로도 엄히 다스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당에서도 언행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민주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정상을 만나 역사적인 외교성과를 이끌어낸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평가도 없이 국정갈등만 부각시켜 정국을 혼란스럽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번 원내 대변인의 막말 사태에 대한 분명한 처리와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주도권 싸움을 내려놓고 민생에 집중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기를 바란다.

2013년 7월 1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조선일보 사설, 언제부터 빨개졌나?

오늘 7월 12일자, 조선일보 사설이 유난히 길다. 제목은“국정원 제 발로 정쟁 끼어들면 국정원 망친다”.제목 자체에 국정원에 대한 약감정이 묻어났다. 지난 7월 10일 국정원이 노무현 대화록에 대한 국정원의 공적인 입장과 해석을 놓고 악의적으로 문제를 삼은 글이다.

국정원의 입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역적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록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화록은 크게 세 가지의 역적내용을 담고 있다. 1) 대통령이라는 자가 적장과 한 편이 되어 미국과 한국을 대적하여 싸웠다는 사실 2) 인천과 서울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갖는 방대한 서해영토를 적장에 상납하겠다는 절규의 내용 3) 한국 장관들이 한국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보고서를 적장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북한을 정신적 조국으로 여기는 빨갱이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생생한 증거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벼라 별 위험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개처럼 바치는 것이 애국의 표상이고, 애국은 국민최고의 덕목이다. 국정원은 국가를 최일선에서 지키는 공적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이런 이적·역적 문서를 국민에 숨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반역이다. 이러한 사고체계 하에서 국정원이 역적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애국하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대행사설을 쓴 인간은 어떻게 썼는가? 이 역적문서는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국정원에 독을 뿜어댔다. 과연 공개하지 말아야 할 문건인가? 빨갱이 세력들이 벼라 별 말을 만들어 국민 상식을 혼미하게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켰다. 이에 국정원과 국방부가 나란히 나서서 빨갱이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여기까지에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바다 개념이 약한 국민들에 문제의 성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는

“수원·양양선”을 생각해 냈다. 노무현이 말한 것은 곧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드는 ‘휴전선 포기’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런 성격의 것을 놓고 조선일보 사설을 쓴 인간은“입장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갈라지는 NL 문제”에 대해 국정원이 어느 한 편을 들었다고 공격한다. 조선사설은 또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 영국 MI6 등이 그 기관의 역사에서 이런 식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물었다. 참으로 웃기는 말이다. 조선일보에 묻는다. 조선사설이 지정한 여러 국가들에 ‘적장에 영토를 상납하려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를 적장에 바친 대통령’이 있었는지 대답해 보라. 이 정신나간 인간들!

도대체 이 빨갱이를 대변한 오늘의 조선사설을 쓴 인간은 누구인가? 광주1고 출신이라는 강찬석 주필인가? 누가 썼든 이는 강찬석 주필의 책임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 한심한 조선사설은 또“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은 얼굴이 없어야 한다. 그늘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행동하는 기관이라면 입도 없어야 한다. 건건이 나서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얼굴을 팔고 마이크를 잡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정보기관”이라 했다.

국정원은 야당으로부터, 온갖 빨갱이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모략을 받아도, 국가를 북으로 끌고 가도 얼굴도 입도 가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을 쓴 인간의 입을 꿰매고 싶은 분노가 이는 망발이다. 조선사설은 또 엄청난 꾀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국정원의 주장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해를 포기하려 했거나 그런 의혹을 부를 만한 발언을 했다면 헌직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 엄중한 문제”라 한다. 무슨 말인가 알아보니“노무현 대통령의 영토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이 둘로 갈라진 것 자체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되기 때문”이라 한다. 이런 심검고도 요상한 꾀변의 글이 조선일보의 ‘대행사설’로 나왔다니 살아 떨리고 치가 떨린다.

짧아진 여성의 옷차림 탓?

극장서 화장실서 ‘몰카범’ 급증

몰카범 급증원인 교수부터 학생, 변호사까지 각양각색

2008년 576건→작 여성들의 옷차림이 짧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수부터 학생, 변호사 등 각양각색의 ‘몰카범’들이 극장에서 화장실까지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변호사 성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성 씨는 6월 21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서초동의 한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하던 A 씨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 씨의 휴대전화에

는 A 씨 외에도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100여 장 가까이 저장돼 있었다. 6월 19일에는 대학생 B(25) 씨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C(26) 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5월에는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교수 D 씨가 영화관에서 소형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뒷자리에 앉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D 씨는 피해 여성이 몰래카메라를 눈치채자 황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극장 좌석에 명함을 떨어뜨려 달미를 잡히기도 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2401건에 달해 2008년의 576건에 비해 4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2008년 576건에서 2009년 807건,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등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가 많은 여름철을 맞이도 전인 5월 말까지 991건이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차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관리가 허술한 공공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찍는 몰카범들이 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이 관련 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진우 목사 2012년-2013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대석목사)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3-2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9 예배교회(류준모목사)
30-1/2 한들교회(송우중목사)

2012년 2월

6-9 갈릴산기도원(이국란원장)
12 예수수양교회(신동식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신갈성로교회(이광수목사)
13-15 성산수양관(윤호균목사)
16 평강교회(박성주목사)
19-22 동명행강교회(고영철목사)
27-29

2012년 3월

속북대심방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2 갈릴산기도원(임예재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종목사)
5-6 성산기도원(박정연원장)
9-10 정기교회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18 동리제자교회(이석원목사)
23-25 온사랑교회(김주목사)
27 갈릴산기도원(임예재원장)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홍은교회(이평천목사)
13-16 성산교회(송만호 목사)
21-24 광릉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안양교회(윤영구목사)
7 갈릴산기도원(임예재원장)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2-14 베레스교회(허영목사)
17-30 2주연속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2년 7월

2-5 사명자영성회(송요선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9-10 신화생여름제미나
23-26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2년 8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8-10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갈릴산기도원(이국란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3-5 주우리교회(이광수목사)
10-12 새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단총회
24-26 일신제일교회(천창대목사)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5-16 정기교회
19 성산기도원(박정연원장)
22-25 천리교회(송대규목사)
26 갈릴산기도원(임예재원장)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29-31 김대덕기독교연합성회(회장 천선현목사)

2012년 11월

3 주향기교회(김홍수목사)
5-9 신교지망
11-14 동서교회(라계두목사)
19-21 천리교회(이영진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6-28 예수비전교회(이영준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선교회
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1 갈릴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013년 1월

1-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9 장안성결교회(강석진 목사)
10 강남금식기도원(김성광 원장)
14-16 길신교회(김동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1 참중은교회(김갑성 목사)
28-30 청년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5 참사랑교회(강신조 목사)
4-7 갈릴산기도원(이국란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8-20 광정성결교회(남봉우 목사)
21 갈릴산기도원(임예재원장)
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25-28 비전교회(조정현 목사)

2013년 3월

속북대심방
17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013년 4월

1-3 광릉내교회(김성용 목사)
8-11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5-16 정기교회
22-25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9-1 주우리교회(이규환 목사)

2013년 5월

3 C채널 TV예배
6-8 참사랑교회(강신조 목사)
11 주향기교회(김홍수 목사)
13 신일교회(정병수 목사)
17 갈릴산기도원(임예재 원장)
19-6월1 2주 연속 특별 심야기도회

2013년 6월

3-5 화교연합수련회(원회)
10-13 온사랑교회(최대석 목사)
14 오산리금식기도원(국혜원 원장)
15-16 한들교회(최종우 목사)
17-19 C채널교회(송우중 목사)
20-21 진주기도원(김신홍 원장)
24-27

2013년 7월

은혜교회(유권재 목사)
1-3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7 성산교회(신승중 목사)
8-10 선교지신화여름특강
15-19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 소진우 목사)
21-27 한기전교인연합수련회
29-31

2013년 8월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4 금산리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5-8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2-15 천보산기도원(이국란 원장)
19-22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6-29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전 화 / ☎ 02) 2618-8877-8, 2060-9123
FAX 2060-9124 / 당회창실 ☎ 02) 2684-3317

송춘석 목사 리앤송 웨밀리 콘서트 큰 성황

음악전공으로 하나가 된 송춘석 목사 가족음악회

온 가족이 음악전공으로 대성황을 이루어낸 송춘석 목사는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한누리 아트홀에서 지난 5일(금) 저녁 7시 전 좌석이 매진된 가운데 열린 '리앤송 웨밀리 콘서트'로 대 성황을 이룬 가운데 막을 내렸다. 전 가족이 음악을 전공하여 가족음악회로 열린 송춘석 목사, 전 가족이 음악회를 갖는 것은 정말 극히 드문 일이라고 본다.

이날 송춘석 목사 가족음악회에서 바리톤에 아들 송영후, 피아노에 딸 송지혜, 첼로에 조카 이

승현, 바이올린에 이정현, 피아노 송지선, 작곡 송영훈, 이금영 사모가 지휘를 맡은 '에클레시아 어린이 선교합창단'의 특별출연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바이올린 연주로 리앤송 웨밀리 콘서트는 막이 올랐으며, 연주가 진행되어 가면서 관중의 반응은 점점 고조 되어갔다. 이날 송춘석 목사를 비롯한 동생 송준근, 송인화, 사모 이금영, 제수 김정옥, 매제 이우명, 사위 신현준, 아들 송영후, 조카 송지선, 송영훈, 이승현, 이정현, 피아노 반주

딸 송지혜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중창을 끝으로 연주되었을 때는, 최고조의 앙무 박수갈채를 받는 가운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연주회를 기약하면서 가족연주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총지휘를 맡았던 송춘석 목사는 가족들을 대신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많은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했다.



민주당 자폭이나 "홍익표 퇴출"이나

홍익표의 패륜적 망언과 악마적 저주, 공당으로서 설 땅을 잃게 돼

민주당 원내대변인 홍익표의 귀태(鬼胎)발언은 목과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소시오패스의 패륜적(悖倫的) 살의까지 느끼게 할 정도의 귀축(鬼畜)보다 더 한 악마적(惡魔的) 저주(呪詛)이다.

이는 홍익표 개인의 성장환경이나 가족이력 같은 인격형성(人格形成)과정을 뜯어기기에 앞서서 이미 야수적(野獸的) 공격성과 단말마적(斷末魔的) 언동을 통해서 구제불능의 인격파탄(人格破綻)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런 자를 공천한 한명숙 문제거나 재정장부 열람을 요청하다 제명 출교된 4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 측이 제기한 '교인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교회는 지난 1월 이들 4명에게 '교회 예배, 집회에 참석할 수 없고, 신청인 교회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출입과 사용이 불가하다'는 공고를 했으나, 이런 법원의 결정으로 이들의 예배당 출입이 자유롭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결정문에서 "교인출입금지 가처분은 목회자의 권한이 아니다"며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으로 '출입금지'를 명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교인들은 그간 교회 출입과 예배 참석을 시도하다 교회 측과 물리적 마찰을 빚는 등 부끄러움을 더하고 있다.

발언의 위중함은 가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죄라고 할 것이다. 중요한건에 대한 재석 2/3찬성을 통과요건으로 정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이미 형해화 된 국회이지만 소위 "윤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민주당 자체 당헌상에도 형식적이나마 윤리위원회 규정과 처벌 조항이 있으나 자정(自淨)능력과 재생복원 기능을 상실한 국회나 정당에게서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다.

이런 홍익표의 야수적 망언과 귀축(鬼畜)악마적 저주는 단순한 실언이나 우발적 망언, 또는 일상적 여야정쟁에서 일탈 차원이 아니라 공당의 원내대변인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정권탈취와 체제전복을 노린 공세이자 도발이라는 점은 물론, 죄질 면에서도 윤리도덕이나 법제도를 따지기에 앞서 반인류 비인간적 범죄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국민이 약자에 대한 관용과 소수에 대한 배려가 깊은 국민이라고는 할지라도, 민주당 홍익표의 패륜적 망언과 악마적 저주는 용서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반인륜사건이라는 사실은 김한길 전병헌 당지도부 뿐만 아니라 親盧 문제인이나 40여명에 이르는 중북반역전과자들도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민주당의 선택은 단 하나 김한길과 전병헌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홍익표를 출당 제명하고, 장기인 삼보일배와 회초리 투어로 전국을 돌면서 진정어린 참회와 반성을 통해 국민의 용서를 받아 거듭나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논설위원 백승록 저문 hugepine@hanmail.net

충현교회 담임목사 은퇴 전별금 25억? 파문 경찰개입

대형교회 왜 이러나 한마디로 부끄럽다. 담임목사의 교회 돈 전횡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던 충현교회가 담임목사의 은퇴 전별금 파문으로 또 다시 사회로부터 거센 지탄을 받고 있다.

"전별금 지급, 공동의회 안 거쳐 '배임' 검찰 고발"

충현교회(담임 김동하 목사)가 지난 4월 17일 은퇴한 김성관 목사에게 지급한 전별금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충현교회로 안수집사는 지난 달 24일, 김성관 담임목사와 전별금 결정에 관여한 16명의 각 위원장 장로들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사건은 강남경찰서에 송치된 상태다.

김 목사는 교회로부터 퇴직금 15억 원과 주택 구입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25억 원의 전별금 및



이에 따른 증여세 8억 4천만 원을 받았다. 교회가 김 목사의 은퇴를 위해 33억 4천만 원의 거액을 지급한 것이다.

문제는 지금 결정 과정이었다. 고발인 측은 "이 전별금 지급 결정이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를 통해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관련

인사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인들에게 묻지도 않고 불법 지출한 금액에 대해 관련자들은 공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경찰의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김 목사의 은퇴 전별금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전 대비 혹서기 축사관리 이렇게

충청농업기술원, 경보기와 자가발전기 준비 등 철저 당부

충청북도농업기술원(김숙종 원장)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반면, 원전 3기의 정지로 여름철 전력 수급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전과 폭염에 대비 축사관리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정전이 되면 축사 내 냉

방, 환풍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유해 가스가 높아져 자칫 대량 폐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축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경보기를 설치하고, 자가발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환기팬 미작동시 축사 지붕에 물을 뿌려 축사

내 온도를 낮춰줄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확보하고,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가축들의 음수량이 증가하므로 음수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축사 내부에 물을 뿌릴 경우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내부의 상대습도가 높아져 가축들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민대홍 지도사는 "7~8월 혹서기 때 정전 사태 및 순환정전에 대한 무한 대비만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예화■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간 이야기

토목, 건축, 회화, 군사기술자로서 종군, 측량과 지도제작, 기중기의 고안, 문화건설, 궁정 오락 연출, 헬리콥터의 설계도 작성 등등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만능의 천재'였다. 그가 남긴 많은 이론과 설계 중 가장 특이한 것은 인체 해부도. 매우 정확한 뿐만 아니라 인체에 대한 그의 철학적 성찰까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시체를 해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교회의 법이 엄격하였다.

다빈치는 약 30구의 시체를 해부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주로 한밤중에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파내어 희미한 촛불 아래 시체를 해부해 인체의 여러 구조와 비례를 파악했다고 한다. 윤리도덕의 문제를 떠나서 그의 이러한 열정에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본다면 철학 같은 어둠속에서, 그것도 공동묘지에서, 그것도 낮에 갓 파묻은 시체를 파내어 배를 가르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습을...

중흥교회

담임 **엄신형** 목사
(직전총회장)

주일에배안내

오전 7시 1부, 11시 2부, 오후 2시, 5시

134-884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전화 : 02)476-713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수요일 : 오후 7:30
주일오후 : 오후 2:00 새벽기도 :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2013년 포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 사 : 전순자, 김재,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피 코렐 http://lov153.cafe24.com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우솔초** 목사

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새벽 5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자움(A) 319동 1803호 http://ezob.org
☎ 02)414-1191 H.P 011)775-5154 010-4611-3221

서울방주농아교회

담임 **임혜숙** 목사
청각장애인지방연합 대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6 2층
문의:010)4611-3221

실만한물가교회

예배안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가는 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주일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전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이런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 · 고등부 주일 오전 9:30
대학 · 청년부 (토) 저녁 7:00
심야 기도회 (금) 저녁 9:00
프리스텟 성경공부 (토) 오전 9:00 (토)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담임 **허식** 목사
(한경총 총회장)

예배안내

오전 11시 1부, 오후 2시 2부

426-1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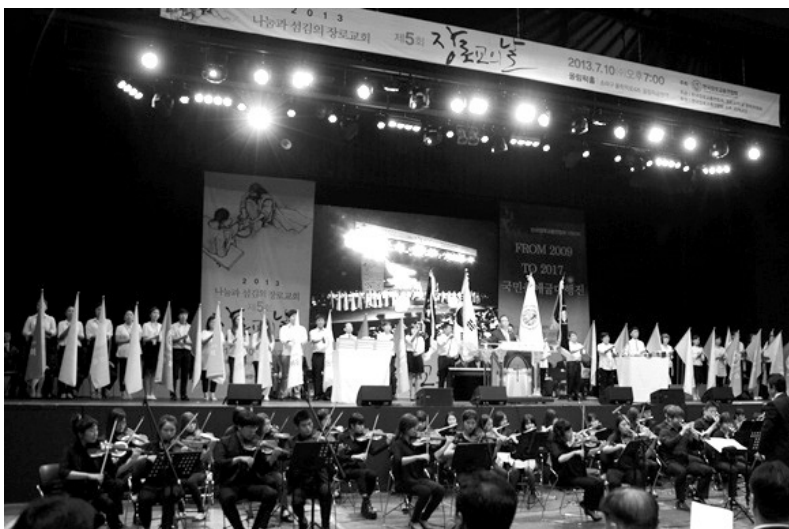
담임 **오상벨** 목사
(본지상임이사)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벧4:13)"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한장총, 섬김과 나눔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 다하자

올림픽홀에서 “제5회 장로교의 날” 열려



지난 7월 10일(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있는 올림픽홀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 주최로 “제5회 장로교의 날” 행사가 있었다. 한국 장로교 주요 교단의 목회자와 성도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됨을 외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대회 영상을 개회로 서막을 열었다. 그리고 홍호수 목사(한장총 서기)의 사회로 각 교단 대표와 신학교 대표로 구성된 기수단 입장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권태진 목사(대회장, 한장총 대표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권 목사는 “말씀 중심의 개혁을 이루어 분열과 상처를 회복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한 교단 다체제를 이루고, 교회가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이후 장로교의 날 대회 주제 영상이 상영된 후, 김동엽 목사(통합부총회장)의 사회로 장로교 전통으로 드리는 연합예배가 시작되고 예배위원은 김성봉 목사, 신학위원장, 최원석 목사, 개혁총연 총회장, 정영근 목사, 백성총회장, 김수을 목사, 의전분과위원장, 권태진 목사, 주준태, 이철호, 한영훈 목사, 박남규 목사, 합동북구 총회

장, 조성제 장로, 회계, 윤희구 목사, 한장총 직전대표회장, 김국경 목사, 합동선목, 방지일 목사, 원로목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설교는 권태진 목사, 기도예 주준태 목사(고신부총회장)가 “건강한 한국장로교회, 부흥을 위하여”, 이철호 목사(합신총회장)가 “국가와 민족, 통일을 위하여”, 한영훈 목사(한영총회장)가 “장로교의 미래인 다음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렸다.

3부 나눔과 섬김 예배를 마친 후 이경욱 목사(기획본부장, 백석)의 사회로 3부 주제행사인 나눔과 섬김 행사가 진행되어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메시지 선포하고 이어 박완순 서울특별시장과 각 회원교단의 총회장들의 영상축하메시지가 이어졌다.

이어서 4부는 송태섭 목사(실행위원장, 고려개혁)의 사회로 폐회식이 진행되면서 장로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상익 상영된 후, 김동엽 목사(통합부총회장)의 사회로 장로교 전통으로 드리는 연합예배가 시작되고 예배위원은 김성봉 목사, 신학위원장, 최원석 목사, 개혁총연 총회장, 정영근 목사, 백성총회장, 김수을 목사, 의전분과위원장, 권태진 목사, 주준태, 이철호, 한영훈 목사, 박남규 목사, 합동북구 총회

특별기고

동성애조장, 한국교회 바라만 볼 것인가?



이효상 목사
미래교회포럼 사무총장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신장을 향한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최근 동성애 합법화와 정당화가 공공연히 추진되고 있다. 몇 해전 동성애에 앞장서온 사람을 국가인권위가 인권상을 준다고 해서 반대한 적이 있다. 그런가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동성애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몇가지 사건이 있었다.

먼저는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가 ‘동성애(同性愛)’를 허용하는 조항을 조례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성 정체성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말로 명분을 삼았지만 대다수 학부모·교사는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며 당혹해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집회 허용도 모자라 학교에서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너무 앞서가는 일이며, 보통 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갖게 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법인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에 의하면 동성애는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는 물론이고 동성간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공교육을 통하여 양산될 것이다. 이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에 반대 입장을 표현한다면 3천만원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공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돼 전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교과서는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지침을 주는 것으로 다음 세대가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도덕교과서 일 것이다. 그런데도 <생활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도덕교과서 <생활과 윤리>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 소수자 동성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시작하는 도덕교과서, 더 나아가 교과서가 ‘성적 소수자 문제’에는 찬반 논리가 균형 있게 서술되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소개하는 이야기들만 나열하고 있다.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도덕적으로 옳다고 교육할 때 그들이 쉽게 동성애의 유혹에 걸려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대학 입시중심으로 진행되는 공교육 현장에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진리처럼 주입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동성애 편향적인 동성애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도덕교과서는 성소수자 개인의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달 5일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시험문제에는 지난해 5월 한 동성애자가 서울시내 11개 자치구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문구가 지문으로 출제됐다. 이후 최근 한 고3 모의고사에서도 동일 인물의 글이 지문으로 채택됐다.

이 동성애 허용은 학교를 넘어 이제는 군에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일부 진보성향의 국

회의원들이 나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촉구하는 서명과 입법청원에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31일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이하 군형법 추행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이미 내린바 있다. 위헌과 합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한 인해를 이루었던 헌법재판소 앞은 한국교회가 이겼다는 만세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해 왔다. 그런데 군 형법을 폐지해서라도 동성애를 허용하지는 입법청원에 대해 대한민국 군에서 동성애를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한국교회는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전력이 없는 상황이다.

버스 천대에 동성애를 광고하고, 서울시민 열명중 한명은 성소수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서울시 11개 구청에서 현수막을 걸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주장해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 힘이 미약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회까지 외면하고 방관자로 있다면 확실되는 동성애는 누가 막을 것이고, 제2의 소돔(Sodom) 죄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세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동성애의 교육과 홍보를 금지하는 ‘동성애조장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이 법안이 지난 6월에 통과에는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교회의 역할이 있었다. 한국교회가 다음세대의 성가치관의 혼란과 윤리의 붕괴로 이어질 동성애 문제에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의 연합기관들이 사회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며 대처할 능력을 가졌는가 되짚어보게 된다.

기장, ‘비상시국 촛불기도회’ 개최

한국기독교교장로회총회(총회장 나훈근 목사)는 18일 오후 7시 40분 서울 대한문 앞에서 ‘비상시국 촛불기도회’를 개최한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와 해고자 복직 및 국정원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해 열리는 이날 촛불기도회는 1부 기도회와 2부 십자가 행진(대한문~청계광장)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장은 이번 기도회에 대해 “총체적 난관의 시대를 극복하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빛을 온 땅 위에 선포하기 위한”이라며 “나라를 위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대협, 통일교 척결을 위한 특별기도회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를 설립한 고 박준철 목사 9주기 추모식

한국기독교 통일교대책협의회(이하 통대협)는 지난 7월 8일 (월) 오후 2시에 통대협 사무실 (기독교회관1002호)에서 한국기독교 통일교대책협의회 주관으로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와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 척결을 위한 특별기도회와 고 박준철 목사 9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고 박준철 목사는 31년간 통일교에 교역자로 활동해 오다가 2001년 1월 9일에 통일교를 탈퇴한 이후,



고 박준철 목사

문선명 집단의 비리를 폭로하다가 2003년 1월 23일 ‘한국기독교 통일교대책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통일교계포 불매운동, 2003년 피스킵 축구대회 저지운동, 문선명 집단의 가정단 창단 저지운동, 용평스키장 반대운동, 여수 관광단지 저지운동 등, 순결교육, 순결재단 저지운동 등을 주도하는 등 통일교 비진리성을 알리는데 헌신해 왔다.

고 박준철 목사는 2004년 7월까지 기독교방송, 언론사 50여 곳 등에 통일교의 합동결혼식 등 비진리성 및 비리폭로에 관한 내용을 2000여회 언론 보도를 추진한 결과 2000년도에 45만 상에 이르던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은 2001년 3만 5천 상, 2002년 3천 5백상, 2003년 3500 상에 이르기까지 100분의 1로 축소

됐다.

통대협 사무총장과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회언론회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위원(방송·언론)으로 활동한 고 박준철 목사는 과천 통일교 현직 목사로 시무 중이던 2001년 1월 9일 통일교를 탈퇴하고 문선명 집단의 비리폭로 기자회견 후 가족전체가 탈퇴하고 문선명 집단과 2002년 1월 16일에 민사재판에서 ‘뺨맞긴 30년, 잃어버린 30년’(통일교 비리폭로 저서) 최초로 승소했으나 형사재판은 2004년 7월 12일 19번째 최후 재판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안타깝게 무효처리 되었다. 은혜로운 가운데 통일교 척결을 위한 특별기도회와 고 박준철 목사 9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박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능구리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사랑, 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희망원

예/배/세/간/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한국기독교총회 홍성제일교회

구분	부	시	간
주일	오전 9:00	오전 11:00	
주일	오전 11:00	오전 12:30	
주일	오전 12:30	오전 1:00	
주일	오전 1:00	오전 2:00	
주일	오전 2:00	오전 3:00	
주일	오전 3:00	오전 4:00	
주일	오전 4:00	오전 5:00	
주일	오전 5:00	오전 6:00	
주일	오전 6:00	오전 7:00	

구분	부	시	간
주일	오전 9:00	오전 11:00	
주일	오전 11:00	오전 12:30	
주일	오전 12:30	오전 1:00	
주일	오전 1:00	오전 2:00	
주일	오전 2:00	오전 3:00	
주일	오전 3:00	오전 4:00	
주일	오전 4:00	오전 5:00	
주일	오전 5:00	오전 6:00	
주일	오전 6:00	오전 7:00	



담임목사 오종설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제명공고

예장웨신총회는 ‘멜기세덱 구원론’과 ‘자살한 사람도 천국간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본 총회소속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신학적, 교리적, 성경해석적인 심각한 오류로 인하여 장한국 목사와 이에 동조하는 대한노회를 2013년 7월 15일부터 제명함. 장한국 목사와 대한노회는 예장웨신총회와는 무관함을 밝힘.

2013년 7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특별예배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 강의내용
 -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신교회
- 강의의 저서 : 20 여종 특별말씀

♣ 참작자 권원에게 '영약의 무리, 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전용)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동어 :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된교회



담임 서정환 목사

1. 실천 목표
 - 1. 제사장 나라 뒤의 실천 목표
 - 1) 교회를 통해서 다라 놓는 자원 교회(신112:6-5-6절)
 - 2) 선교를 통해서 다라 놓는 자원 교회(행13:1-3절)
 - 3) 성경을 통해서 다라 놓는 자원교회(골4:10-20절)
2. 거룩한 백성 뒤의 실천 목표
 - 1)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신5:12-15절)
 - 2) 말과 행위에 실수하지 않는 성도(약3:1-12절)
 - 3) 악한 것을 배려할 줄 아는 성도(골4:1-12절)

(445-380) 경기도 하성시 안평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윤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원예담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예배 1부:09:00 (오전) / 2부: 11:00 (오전)
주일오후 예배 02:30 (오후)
삼일기도회 07:30 (오후)
새벽기도회 월~금 05:30 (오전) / 토 06:20 (오전)
부서별기도회 금요일 09:00 (오후)
새가족 12:30 (낮)
청년부 02:00 (오후)
청소년부 11:00 (오전)
초등부(1~6학년) 09:00 (오전)
유치부(6~7세) 11:00 (오전)
영아부(3~5세) 11:00 (오전)



담임 이재성 목사

관악구 신원로 3길 59-9(8/2) (구.신림1동 1612-7)
☎ 02)859-3671 FAX 02)859-3673

미주 이민 30년 만에 최초 연합성회 열어

리수족들, 한국 음식으로 불고기 잡채 김치 만두 묵, 좋아해

제 1회 미주 리수(LISU) 크리스찬 연합성회가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아래 은혜가운데 잘 마쳤다. 2013년 7월 4일 오후부터 7일 주일 오전까지 시카고 지역 가나안 기도원에서 디아스포라 리수족이 미주 이민 30여년 만에 최초로 연합성회가 열렸다. 사실 올해 리수족 지도자인 라우 목사는 송 성도에게 장소 선정과 도움을 요청해 올 때만해도 그는 과연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멕시코 김학희 선교사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는 말씀에 용기를 얻고" 그래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모두 이루어 주시리라"고 생각하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는데...과연 미주 리수족 연합 성회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열리고 진행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드린다.

지난 4일 목요일 첫날엔 장거리에서 오는 리수족을 위해서 한국 음식으로 불고기 잡채 김치 만두 묵 등을 대접했는데 너무나 좋아했으며 김치는 모자랄 지경이었다. 미네소타, 버지니아, 인디애나, 미시간, 시카고, 일리노이 락포드, 밀워키, 캘리포니아에서 약 60명 정도가 모였다.

이 기간 동안 미주 리수족 연합회(LISU AMERICAN ASSOCIATION)

가 결성이 되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엔 전통 리수족 춤 경연이 있었는데 송 형제도 따라 해 보았는데 보기와는 달리 스텝이 합들었지 만 너무도 재미있었다.

또 토요일 저녁 예배엔 강신웅 목사가 이곳을 찾아와 리수족을 위한 선교헌금과 이주민으로 미국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주일 아침엔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집에서 가나안 기도원으로 가보니 아무도 없어서 깜짝 놀랐다. 별별 불길한 생각이 다 났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른 아침에 모두들 식사를 마치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송 성도에게 연락하는 것을 잊고 이소벨 선교사의 묘지가 있는 휘튼 칼리지로 달려간 것이다.

기도원을 관리하는 한국 폴 양목사는 어떻게 된 일이라고 여쭙어보니 너무나 흡족한 표정으로 리수족이 청소를 깨끗히 하고 마무리를 잘 짓고 떠났다고 정말 믿음의 민족답다고 말하며 사용비용도 많이 받지 않았다고 했다. 잠시 후 리수족 경신도 대표인 누니 자매님의 연락을 받고 급히 차를 몰아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휘튼 칼리지 묘지로 달려갔다. 도착해서 수 많은 묘석을 가운데 쓸쓸히 자리하고 있는 이소벨 선교사의 작은 묘석이 있는 곳으로 약 50여명의 리수족 형제들을 안내하여 동그렇게 돌아서서 선교사의 묘석을 내려다보는데 작년

의 일이 떠올랐다. 작년에 이소벨 선교사(Isobel Kuhn)의 묘지가 송 성도가 사는 시카고 지역에 있음을 알고 혼자 찾아와서 선교사를 기리는 추모기도를 하며 "리수족들이 이 묘지에 와서 함께 추모식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놀랍게도 1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소벨 선교사는 무디 신학교를 졸업(1926년)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중국 내지 선교회(CIM)의 선교사로 중국 리수족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였고, 독특한 제자훈련을 통해 수 많은 젊은 복음 전도자를 키워내서 리수족을 중국 유일의 기독교 민족으로 공인하도록 만들었으며 전 인구의 80퍼센트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도록 헌신하고 병을 얻어 시카고 휘튼 칼리지 묘소에 1957년에 소천하였다.)

라니(Rani) 목사의 기도로 추도예배를 시작하였고 곧이어 라우(La Wu)목사의 요청으로 Opening Words 송 성도가 이소벨 선교사에 대한 연도별 사역내용과 출생에서부터 소천까지의 삶을 소개했으며, 이소벨 선교사의 책 "나라의 동지"를 통해 리수족을 사랑하게 된 경위와 미주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리수족 모두가 이소벨 선교사의 헌신과 섬김을 본받아 이곳 미국 땅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며 말을 마쳤다.

시카고 본지 송진호 기자



“아가페 합창단 포항교도소 수용자 위로 공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수용자들에게 소망을 안겨 주는 아가페 합창단



포항교도소 김중국 소장

은 지난주간 오후 3시 30분부터 포항교도소에서 아멘소리와 재창의 훈훈한 함성으로 강단을 휘도는 뜨거운 정을 나누었다.

마치 큰 교회의 집회에서나 들 어보지 못한 아멘의 함성소리와 우레와 같은 박수는 포항교도소를 뜨겁게 달구는 장이되었다. 게다가 재창을 원하는 수용자들의 요청으로 포항 아가페 합창단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연은 더욱 무르익었으며 참석한 수용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고 있음을 보였다.

아가페합창단은 음악을 통한 찬양선교와 정통적 교회음악교육

을 목적으로 교회 음악을 통해 지역복음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과 정서 함양을 위한 연주회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아가페합창단 단장 최종목 장로(안강영락교회)는 “수용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심령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포항교도소 김중국 소장은 ‘합창으로 하나 되는 모습 속에 수용자들의 희망찬 미래를 보았

다.’고 했다. 수용자의 애로 사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수용자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는 이현주 사회복지과 과장은 ‘공연이 성령충만함을 온 몸으로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고, 공연을 관람한 수용자들의 가슴 속에 잔잔하게 임한 은혜의 감동이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공연은 이기학 목사(경북북부 제 2교도소 종교위원)와 류철제 집사의 헌신으로 성사되었기에 수용자들에게 소망과 큰 비전을 심어주었다.

포항지사장 이기학 기자



“경북북부 제 3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여름은 시원하다. 냉면 day!” 이라는 주제로 7월 4일



청송교도소 경북북부 제3정재홍 소장

재 경북북부 제 3교도소 전 수용자에게 종식으로 냉면파티를 열어 아여름은 역시 냉면이야.. 무더운 여름을 물리치며 즐거움을 더해 갔다.

이날 열린 행사는 이기학 목사(교정위원)의 주선으로 창녕 창녕주민교회 정석중 목사, 창원에향교회의 홍준기 목사, 그리고 창녕군자원봉사 협의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창녕 주민교회 담임 정석중목사는 “농촌의 힘든 여건 속에서도 담 안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번 경북북부 제 3교도소의 수용자들에게 냉면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비

록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수용자들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면서 앞장 서서 최선을 다해 주었다.

창원예향교회의 홍준기 목사는 “예향교회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몸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다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며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담안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하고 다음에 또 이런 귀한 시간이 허락되면 함께 하고 싶

다.”고 했다.

경북북부 제 3교도소 정재홍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고하여 주신 교회와 귀한 분들에게 감사 전하고 제3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전 수용자들은 이 무더위에 냉면대접을 통하여 사랑을 대접받았다고 인사했다.

또한 정 소장은 “앞으로도 교회들의 지속적인 사랑의 손길이 있다면 수용자들은 재범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 열심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으며 소장 및 모든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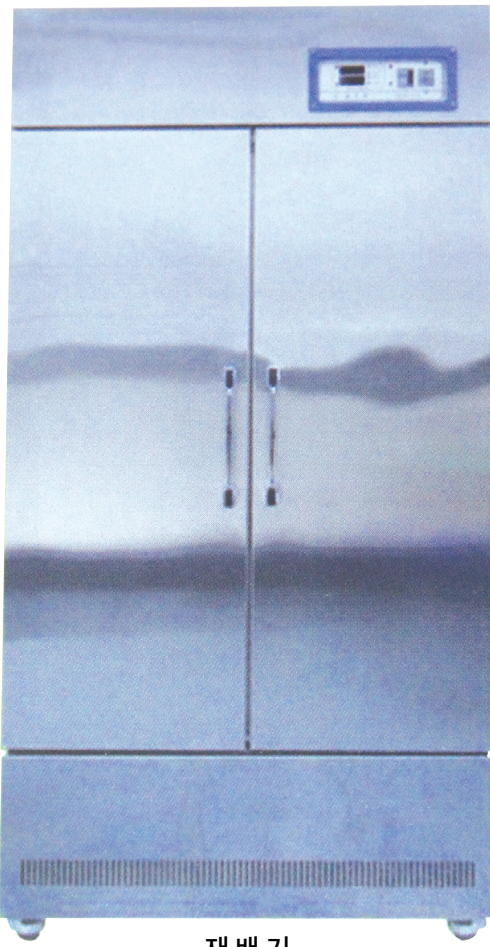
원들은 수용자들이 현재는 감히자의 몸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출소 후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김의 자세로 수용자들을 돌아 볼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이웃이요 가족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도소는 풀을 던지는 곳이 아니라 선교지로 봐야 할 것이다.

포항지사장 이기학 기자



온천하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최대의 희소식



재배기

침수식 콩나물 · 숙주나물 재배기 출시

●특징 및 장점

- ※생산지
 - ★의일생산방 판매시 한 가정의 주 수입원이 된다.(일 6kg 이상)
 - ★좁은 공간에서 작업 생산이 용이하다.(H 1980mm W 4410mm D 800mm)
 - ★물의 소비량과 전기 소모량이 적어 생산비가 저렴하다.
 - ★어느기관에서 검증해도 무독성이다.(독성 무검출)

※소비자

- ★생식용으로 맛과 영양이 탁월하다.(주식으로 사용가능)
- ★생주스로 갈아마실 시, 즉시 체온상승을 느낄 수 있으며 3일 후 몸의 변화를 느낀다.
- ★장기 섭생하면 식원병으로 인한 질병을 하나씩에서 주신 선물을 통해 치료하신다. (식원병: 변비, 관절염, 고혈압, 당뇨, 아토피, 비만, 독소등등)

※사업자

- ★가정, 식당, 교회, 기도원, 요양원, 아파트 노인회, 미지립교회, 선교지 공공기관, 공동체, 사회적기업, 해외수출 등등 많은 판매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물



집사 최영식 주사랑교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모든 음식에서 비롯된 (식원병환자) 질병과 허약함을 완전 해방시키는 특수(콩나물, 숙주나물) 재배기를 저로 발명해 하셨습니다.

●검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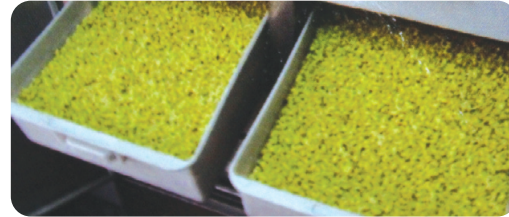


대전 소재 광음교회 이용덕 목사님(시무) 2년여에 걸쳐 '버리지 않는 전도지' 동영상을 You Tube에 올려 놓으심 교회주소 : 대전시 서구 도마 2동 316-7 / H/p: 010-4491-7757 / 010-9372-1163 / T/d: 045-525-1163



▲알찬성장

- 3kg의 콩이 9kg의 화강석을 들어 올려며 성장
- 화강석처럼중으로 콩나물의 뒷지렁이제, 알찬성장 유도



▲빠른성장

- 재배 3일만에 콩나물 성장 완료, 1일 60kg, 300g 기준 200봉지의 신선한 콩나물을 매장에서 매일 아침 생산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
★ 특허 제10-0617624 ◯형 배수관 콩나물 재배상자
★ 실용신안 제0351095호 침수식 콩나물 재배상자



판매처 : 팜메이커(주) 대표 최영식

☎ 010- 8852-5766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162-7

딜러 모집
010-8852-5766

성경해석에 오류가 없음을 밝힙니다

※오류로 진정한 내용에 대해 성경해석상 오류가 없음을 밝혀둡니다.

진정1. 멜기세덱이 영의 구원자다. 예수는 생활구원자다.(산 자의 하나님p.26).

답변1. 예수가 우리 생활을 구원한 자가 전혀 아니다. 예수는 자기 몸을 제물로 하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단번 제사를 우리를 영원 속죄 구원시킨 것이다. 예수님이 영원 속죄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즉 성화를 이루어 가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분명히 신앙고백적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멜기세덱은 무엇인가? 영의 구원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오해가 되면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제사장 직분으로서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려 피 흘릴 것을 전제로 하여, 즉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을 살린 것이다. 그것을 말한다.

진정2. 예수 그리스도(성자)는 하늘에서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제사장으로 있었다.(산 자의 하나님 p.26)

답변2. 본문에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멜기세덱 이름으로 제사장으로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멜기세덱이름이 아니다. 멜기세덱은 직분 자체를 말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이 곧 멜기세덱인 것이다. 멜기세덱은 직분이 다.

진정3. 우리의 영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그리스도인의 7단계 삶 p.44)

답변3. 성경에 모든 창조물은 이미 6일간 끝나고 7일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신다(창 2:2).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영물과 물질)을 지으셨다. 태초의 말씀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늘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욥 38:4~7, 요15:27, 히2:11 등 여러 곳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육신으로 지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입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성경말씀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정4. 아담이 구원 받은 것은 멜기세덱이 하늘에서 구원의 제사를 드려 구원 받았다.(산 자의 하나님 pp.27-28 그리스도인의 7단계 삶 p.101,104)

답변4. 사실무근이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진정5. 멜기세덱이 영의 구원자기에 멜기세덱의 구원을 보지 못한 자는 구원이 없다.(산 자의 하나님 p.36)

답변5. '멜기세덱의 구원을 보지 못한 자는 구원이 없다' 라는 문구는 없다. '멜기세덱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세계가 완하게 열리지 못 합니다' 라고 기록된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예수를 믿어도 멜기세덱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도 있다. 보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세계가 완하게 열리지 못한다. 히5:11 신앙의 초보에 속한 자들에게는 멜기세덱에 대해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다. 산자의 하나님 p.36은 히 5:11에서 말씀하신바 믿음이 장성한 단계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깊은 구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결코 멜기세덱의 구원을 보지 못한다 하여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대상은 자기 백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마 1:21).

진정6. 계시록5장6절의 일찍 죽임 당한 어린양은 멜기세덱이다.(계시록 강해)

답변6.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양은 멜기세덱이다' 라고 기록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강해 p.119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은 멜기세덱을 가리킵니다' 라고 기록되었다. 여기서 어린양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킨다. 분명히 죽임을 당하셨는데, 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이라고 했을까? 아울러 왜 계5:9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6절에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고 했으니 예수님이 아직 육신을 입고 오시기전 하늘위에 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앞으로 성육신하시어 피 흘려 죽임 당하실 것을 전제로 하여 아담을 살리셨기에 죽임당한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며,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9절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진정7. 오병이어의 5병은 신앙의 5단계다. (요한복음강해1 pp.72-73)

답변7. 요한복음강해1 pp.72-73에는 이런 문구가 없다.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은 p.230-237에 기록되어 있다. 보리빵은 요6:35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다.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삼급 적으로 제일 먼저 부활케 되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리빵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이 보리이듯이(왕하 4:42) 부활의 첫 열매되신 예수님이 다섯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셨듯이 즉 고난, 연단, 핍박, 징계,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먹는 자, 즉 그 주님이 주시는 오병을 먹는 자는 성도들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는 자가 된다(계 14:4). 오병은 썩는 음식인(요 6:27) 단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기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오류라고 할 수 있나?

진정8. 성경은 70권이요, 66은 마귀 수 70은 완전수기에 70권이 되어야 맞다.(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하였는가 p.195)

답변8. 성경전체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전체가 5권인데 1권으로 계산하여 कु이 성경을 66권으로 계산하였으니 그대로 5권으로 계산하여 성경 70권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피력하였다. 성경이 집송의 숫자요, 마귀의 숫자인 66보다 하나님의 완전수인 70권으로 하는 것이 살전 5:22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과도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진정9.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멜기세덱은 성자의영의현현이다(산 자의 하나님p.26)

답변9. 멜기세덱과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제사장직으로서의 명칭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다(히 7장). 그리고 성육신하셨을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 명명하신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시기 전이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람의 모습은 영의 현현으로 마치 천사가 육이 없는 영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과 같다.

진정10. 멜기세덱을 알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지리아 된다.(산 자의 하나님 p.29)

답변10. 히 5:11-14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처럼 젖을 먹는 신앙인 어린 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 장성한 자리아 멜기세덱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예로 아브라함(창14:18)이 멜기세덱을 보았으며 다윗이(시110:4)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으로 보았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자도 멜기세덱을 알고 있다.

진정11. 영광의 영으로 인도 받으려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맞아야 된다.(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하였는가 p.26)

답변11. 11번의 발췌문은「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했는가」에서 성령의 명칭을 통해서도 성령의 속성은 신성이시며 하나님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발췌문이 잘못되었다. 영광의 영으로 인도받으려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맞아야 된다는 내용은 책 본문에 없다. "영광의 영"이란 명칭은 특히 벰전 4:14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광에서 너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하고 말씀하셨다. 영광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 오른뺨을 맞고 또 왼뺨까지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갈 때에 악한 자가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대적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인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까지 돌려 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다. 마 5:39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부하신 말씀이다.

진정12. 신유의 은사는 대개 중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에게 임한다.(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하였는가p.194)

답변12.「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했는가」p.194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신유의 은사는 대개 중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에게만 임한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된 대로 "대개 자신들이 심각한 중병을 앓아서 아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거나, 또는 병든 자를 매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나, 병자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데"라고 p.190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원대료가 아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진정13. 멜기세덱이 육체를 입고 와서 피 흘리고 속죄와 구원을 이루었다.(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하였는가 p.78)

답변13. 멜기세덱이 육체를 입고 와서 피 흘리고 속죄와 구원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아니다. 본문 내용을 왜곡하였다. 멜기세덱의 본체는 성자 하나님이고 그 직분이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직분을 수행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의문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밝힌다.

히브리서와 창세기에서 분명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 정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다고 했다. 난 날이나 죽은 날이 없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히브리서에서 증거했다. 이것이 그분의 정체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영원속죄 제물로 드리셨는데, 이를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고 칭한다. 즉 멜기세덱과 예수와의 관계성을 계시해 준 것이다. 이것은 본인이나 주사랑교화에 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동서양을 불문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 말하고 있는 바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구원에 관해 일한 것에 대해 오류라고 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신학적 상황이다.

진정14. 예수 믿기 이전에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하였는가 p.59,72)

답변14.「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했는가」p.59, p.72에 '예수 믿기 이전에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는 문구는 p.59-61과 p.71-74에 기록된 내용에서 발췌한 것으로써 전체 문장을 읽어보면 구원의 주체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2천년 전에 역사적으로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주신 십자가 구원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주관적으로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구원의 내용을 한 가지로만 보기 때문에 왜곡한 것 같다. p.72에는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창 2:17 말씀대로 영이 죽고 지옥의 심판아래 떨어졌으므로써 하나님과도 단절된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창 3:8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하는 것은 분명히 그가 살아났음을 알 수 있으며, 이처럼 구원을 기본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부활)의 3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진정15. 중생은 예수를 믿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하였는가 p.37)

답변15. 앞뒤 문구를 자세히 읽었다면 이러한 오해가 없다. p.37의 한 구절만을 발췌할 것이 아니라, p.36과 p.38을 함께 읽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중생이라 함은 사람의 원함과 기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중생케 하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요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중생은 헬라어로 '겐나오 아노넨' (γεννω ?ανων)으로써, '아노넨' 은 '위로부터' 라는 뜻으로 영어로 'from above'이다. 겐나오는 '날다' 는 뜻이므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 것을 안다는 뜻이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고 그 영에 육신을 입은 것이 사람인데 때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 속에 있는 아들의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늘나라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깨달으면 그때에야 비로소 영으로 있었던 분함,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생은 영이 살아난 것이요, 외적 생활변화가 아닌 내면의 자신의 영이 위로부터 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다고 본다.

진정16. 멜기세덱의 회원보다 생활구원이 더 큰 구원이다.(그리스도인의 7단계 삶 p.125)

답변16. 이는 1번과 같은 내용이다. 특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공생애사역과 십자가의 죽을 통해 죄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부활승천 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열매 맺는 구원(성화, 건축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따라서 요1:50에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이 더 큰 성화의 구원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진정17. '창 3:8' 아담이 살아 있을 때 하늘 위에서 영체로 있던 우리 영도 함께 구원 받았다.(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하였는가 p.72)

답변17.「성령으로 성령을 통달 했는가」 p.72에는 영체라는 단어가 없다. 영체는 부활한 몸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18. 사도행전의 아가보 선지의 예언은 사탄의 역사다.(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하였는가 p.130)

답변18.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 자체가 사탄의 역사라는 의미가 아니다. p.130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p.129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붙잡히게 되고 결국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함으로써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역사인데, 아가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길, 즉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으니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진정19. 요 15:27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처음부터' 는

사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하늘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그리스도인의 7단계 삶 p.44)

답변19. 육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를 이 땅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요 1:2)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영물들을 창조했고 또 물질계도 지으신 후 '함께 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처음부터는 하늘 위에서부터를 말하며 우리도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이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본다.

진정20.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의 크기가 틀리다.(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하였는가 p.92)

답변20.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의 크기가 틀리다'고 질문한 것은 책에 없는 내용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표현해야 옳은 것이다.「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했는가」 p.92의 문맥의 내용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 만 부르짖고 예수님만 크게 보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 세 인격자로서 하시는 사역이 각각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진정21.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의 영에게 흠으로 육신을 입고 생명의 호흡을 넣었다.(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하였는가 p.106)

답변21. 창2:7 말씀의 사람을 만들었다 하심은 영혼과 육신이 있는 존재를 말하며 속이 텅 빈 흠으로 된 사람모양의 조각품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흠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흠은 육체를 의미하므로 사람이 텅 빈 당연히 영에 육신을 입은 것이다. 또한 그의 쿠투명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한다. 요20:22 말씀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생령의 호흡은 '느사파 하야'이다. 즉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의 일반 사역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교제를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진정22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배필로 준 것이 공중의 새다.(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하였는가 p.105)

답변22.「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했는가」p.105에는 발췌한 문구가 없다. 또 발췌한 내용은 창2:18-19 말씀인데 인용이 잘못되었다. 성경 본문에는 "남자(개역: 사람)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배필로 흠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라고 말씀하셨다. 이미 짐승과 새는 창 1장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이다. 또한 아담의 배필은 갈비뼈 뽑은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와이다(창2:21~25).

진정23.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성령으로 성령을 통달하였는가 p.102)

답변23.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나? 오히려 예수님은 눅 17:20-21에서 예수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고 하셨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리에서 난 자들로 하나님의 선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지 않으므로 죄 사함도 없고 모든 삶이 불태워진 영원한 사망이므로 음부에 속한 자들이라고 본다.

진정24.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생활구원을 이루게 하신다.(그리스도인의 7단계 삶 p.45)

답변24. 구원에는 3가지가 있다. 기본구원의 역사(생명구원)와 성화의 구원역사(건축구원)이다. 이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중에 살도록 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구원(부활)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하여 한가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엡 2:8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과 얻을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빌2:12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롬8:23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진정25. 엘리야에 3가지 생명이 있다.(성부, 성자, 성령)(산 자의 하나님 p.291)

답변25. 예수께서 요6:63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 속에는 영적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은 주의 말씀, 복음을 들으므로 계속 충만케 되는 것이다. 특히 고후13:14의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3위1체 하나님으로 강복하는 말씀이 나온다. 이는 사도바울 속에 3위1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구약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렘다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서 3번 기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다. 곧 성부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 예수님의 구원 생명과 성령의 열매 맺는 구원생명이 있는데 엘리야는 이 세 가지 생명으로 사렘다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이다.

진정26. 멜기세덱의 구원을 보는 자가 장성한 자다.(산 자의 하나님 p.36)

답변26. 히 5:11-14 기록된 말씀 그대로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의 구원에 대한 것이기에 신앙이 장성한 자가 아니면 듣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다고 한 것이다. 젖 먹는 어린 아이 신앙은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이다.

진정27. 멜기세덱의 구원이 없으면 예수가 올 이유가 없다.(그리스도인의 7단계 삶 p.124)

답변27.「그리스도인의 7단계 삶」pp.122~127 까지 전체 내용을 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왜곡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인데(마 1:21),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성육신 전) 아담과 함께 지옥의 심판아래 떨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4천년 후에 성육신하여 피 흘릴 것을 전제로 하여 구원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성자 하나님)이 직접 욕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으로 명명하셨던 것이다(히5:6,10, 6:20, 7:21).

진정28. 계시록4장에 나오는 일곱 등불이 켜지는 숫자에 따라 단계(신앙)가 틀리다.(그리스도인의 7단계 삶 pp.131-137)

답변28. 하늘나라가 어두워서 등불을 7개나 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상태를 계시하는 내용이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두워서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성령을 통해 단계적으로 깨닫게 하고 밝히시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도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밝히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다. 불을 하나 켜 것보다 두 개를 켜면 더 밝아지는 이치와 같다.



장한국 목사
대한노회장

<9면에 이어서>

성경해석에 오류가 없음

오류로 진정한 내용에 대해 이에 대한 답변을 밝힙니다.

● **진정 29.**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은 순교의 강을 건너자다.(그리스도인의 7단계 삶 p.54)

○ **답변 29.** 성경에서 히브리인으로 칭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은 창 14:13의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결국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소유자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그 결과 타국인들에 의해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으로 불려졌다.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종전에 마귀의 종노릇하던 죄의 몸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된 영적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요단강과 같은 육의 강을 건너 자가 된 것이다. 육의 강을 건너 영적인 히브리인은 더 나아가 순교의 신앙으로 성장케도 하신다. 사도바울이 빌 3:5에 자신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였고 답후 4:6에 자신을 이미 관재로 드러질 준비가 되어있다고 고백 했듯이, 신앙의 최고 종착지는 영적인 히브리인에서 발전하여 주님과 같은 순교 제물로 드러지는 순교의 강을 건너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이다.

● **진정 30.** “요 19:26-27” 주님께서 모친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마리

아가 육신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는 단계가 지났다.(그리스도인의 7단계 삶 p.52)

○ **답변 30.** 요19:26-27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 아닌 근본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게 된 것을 단적으로 계시하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의 제자 사도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하셨다. 이는 마리아와 사도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옛 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의 7단계 삶」pp. 52-53에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읽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해되어 있다.

● **진정 31.** 기인, ‘눅16장의 부자’, ‘자살한 사울(모든 산 자)’, ‘두 강도’, ‘홍수 때의 죽은 자’... 모두 구원 받았다(사사기 구원계시 p.29, pp.52-53)

○ **답변 31.** 「사사기 구원계시」 p.29, pp.52~53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눅 16장의 부자를 대부분 지옥에 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에 있다고 본다. 자살한 사울이나 모든 자살한 신자들도 현재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또한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음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모든 삶을 불태우는,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이 되므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불태워진 것으로서 결국 음부에 속한 자다. 음부에 속한 자기에 사후에 음부에 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두 강도 중에 주님이 말씀한 ‘네가 나와 함께 나월에 있으리라’ 한 행악자 외에 한 강도 역시 음부에 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롯 유다도 자살했지만 이와 다르다. 가롯 유다가 자살한 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란 뜻이다. 즉 불택자이다. 따라서 그는 결국 지옥으로 가는 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 **진정 32.** 가족뚫은 누구나 앞뒤 양의 가족이다. 창 3:21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족뚫을 지어 입힌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신 구원받은 표징이다. 20절에 아담이 하와를 산자라고 부른 것은 선악과 먹으므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나타내며 이는 그들을 성자 하나님이 제

사장 직분인 뿔기세덱으로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기에 4천년 후에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성육신하시어 피 흘릴 것을 전제로 하고 구원하신 것이며 이를 깨닫지 못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족뚫을 지어 입힘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다.

○ **답변 32.** 하나님은 뿔기세덱으로 우리의 영을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가족뚫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냈다.(산 자의 하나님 p.31)

● **진정 33.** 주기도문 ‘뚫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창 3장의 보이지 않는 제단에서 이루신 영의 구원이다(산 자의 하나님 p.205)이 외에도 너무도 많은 오류가 있다.

○ **답변 33.**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요6:39~40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속죄구원, 성령의 성화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즉 구원은 성자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속죄구원과 성령의 성화구원이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신다는 목적을 선택하신 것을 말한다. 이는 타락 전의 전락설이나 타락 후의 후락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 없게 할 목적을 택하신 것이다.



대한노회 경과보고

<1면에 이어서>

중앙노회로 이명환 송배드로, 방윤희 목사의 주도하에 2011년부터 경천노회 이기식 목사의 불법행위 이후 대한노회 소속 윤장석, 박순례, 이봉순, 김순양, 이숙희 목사 등 7명이 수시로 모임을 가지며 노회장 장한국 목사가 신학적, 성경적, 교리적인 면에서 심각한 오류로 왜곡되다 주장하고 지난 7월 2일 총회에 진정서를 내는 동시에 노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총회에서는 4일 총회 임원회와 총회 신학위원회를 열어 노회장 장한국 목사를 소환, 7명이 제출한 오류 33가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노회장은 진리에 입각하여 답변을 했지만, 결국 노회장과 대한노회 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법적절차 없이 퇴출승인을 부총회장 장창운 목사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송배드로 목사 등 7명이 왜곡되어 주장하는 사항은 2010년 12월 ‘교회와 이단’에 일부 노회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장한국 목사의 과거 저서에서 내용들을 짜깁기하여 ‘이단이 아니라 조금 황당하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내용으로 기사화하였고, 총회에서는 이 내용을 입수하여 2011.1.6 제95회기 4차 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장한국 목사를 축적시켜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아울러 ‘교회와 이단’ 잡지사 취재부장이 질의한 성경과 교리문제 10문에 대

한 장한국

목사의 답변을 총회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였으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이러한 사항을 2011.1.19일 지저스타임즈 6면에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 모든 것이 총회차원에서 일단락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배드로 목사는 계속 잡지의 기사내용을 노회원들을 만나 장 노회장을 비방, 왜곡하며 급기야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분명한 중상 모략이요 인격을 모독한 행위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또한 노회장은 물론 대한노회원 모두를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이며 노회장과 대한노회가 총회로부터 퇴출된 사건에 대해 서 당사자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 성홍경 목사가 95회기 총회장으로 재직당시 2011.5월 장창수, 이봉우 목사 등 원로 몇 명과 총회 서기인 이기식 목사가 주동이 되어 총회장 성홍경 목사가 원로인 자기들의 말을 잘 듣지 않지 않는다고 총회장과 총무를 직무정지



서기 박민규 목사

시키고 임원진을 해체한 후 총회를 장악하려고 모의한 사건이 사전에 발각된 일이 있다.

그래서 총회 임원회에서는 총회의 안전을 위하여 총회 비상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총회의 모든 직무정지 및 총회원 자격정지를 결의하고 공포하게 되었고 장창수, 이기식 목사가 이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이미 총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교회와 이단’의 기사를 가지고 장한국 목사를 이단이라고 자기들이 규정하고 고 성홍경 총회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회장이 이단을 옹호한다는 음모의 불법유인물을 만들어 수차례 전 총회원들에게 발송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총회는 2회에 걸쳐 공문으로 (2011.8.11, 예정웨신 제95-38호/ 2011.8.19) 전 총회원에게 장창수 목사와 이기식 목사가 주장하는 불법유인물의 내용은 이미 2011년 1월 총회 임원회에서, 총회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재확인 내용으로 밝힌바 있다.

또한 송배드로 목사의 자필, 6명의 서명으로 총회에 올린 진정서의 내용은 ‘중앙노회소속 방윤희, 송배드로 목사, 당시 대한노회소속 김순양, 박순례, 이봉순, 윤장석 목사 등이 총회장과 임원을 그리고 신학위원회에 몇 권의 책을 올리는데 잘 검토하여 심각한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교단에서 퇴출시켜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신학과 총회와 지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며 경과보고를 마쳤다.

세계한민족선교대회 대회선언문

우리는 2013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방을 향한 한민족의 도약”이라는 주제 아래 홍콩 및 심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교회의 선교지도자들과 뜻있는 평신도들, 5대양 6대주에 파송되어 선교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한민족교사들, 그리고 홍콩한민족교회와 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및 선교의 일군이 될 젊은이들을 합하여 1000여명이 초교파적으로 회집되어 2013 한민족디아스포라선교대회를 가지게 됨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민족 목

회자들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선교적 사명을 재확인하며, 흠여졌던 함과 지혜를 함께 모아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선교를 더욱 힘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세계선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만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다.

3. 우리는 세계선교가 올바로 수행되기 위하여 한민족교회들이 자립과 동반자적 선교의식을 확립하며 한민족교회들이 총동원하여 선교적 공동전선을 이룩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세계선교에 대한 하



남의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응답하기 위하여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동반자적 관계를 확인한다.

5. 우리는 모든 복음적 선교기관과 협력하여 세계복음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6. 우리는 세계한민족선교대회를 지속할 것을 선언한다.

2013년 7월 8일
세계한민족선교대회 참가자 일동

탈퇴 공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는 노회장 장한국 목사, 부노회장 오상렬 목사, 서기 박민규 목사, 회의록서기 박명자 목사, 회계 유운주 목사, 이창우 목사, 김철우 목사, 박종연 목사, 김은임 목사, 김정미 목사, 최순란 목사, 이순재 장로, 장정훈 강도사, 이진영 강도사 등은 7월 12일 임시노회를 열고 결정된 바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를 탈퇴하였기에 이에 공고함

결 의 문

금번 대한노회 노회장과 노회원들에 대한 합당치 아니한 진정건과 웨신총회의 결정 등으로 인하여 본 노회의 분명한 신앙노선과 한 공동체로서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다짐 필요가 있게 되었기에 이를 선언하며 다짐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대한노회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과 정경을 믿는다.

둘째, 우리는 성경을 최종권위로 믿으며 복음과 진리의 개혁신명에 입각한 보수 정통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

셋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려지며 일하는 노회이며 복음의

5대 핵심교리와 3위체 하나님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노회가 됨을 선언한다.

넷째,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의 직권으로 세워진 노회장을 중심으로 대한노회 이름 안에서 하나이며, 노회원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서 하나 된 노회로서의 결속과 발전을 도모할 것을 다짐한다.

다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며 믿음과 사랑을 충실히 감당할 것이며, 어떤 허황된 말과 속이는 역사에 미혹되지 않고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굳게 진리를 사수할 것을 다짐한다.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장한국		이창우		이창우	
김철우		이봉순		박종연	
유운주		박명자		박명자	
최순란		김정미		김정미	
이진영		장정훈		장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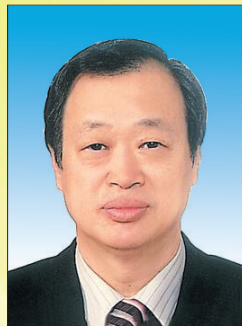
주후 2013년 7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노회원 15명 일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2013년도 목표 :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 오후 5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 오후 6시
새벽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 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V자 사인은 사탄의 상징임을 알아야!

1. 김연아의 새로운 갈라 이매진과 V 사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달 21일 김연아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별 아이스링크에서 2013 새로운 갈라 '이매진'을 선보여 많은 갈채를 받은 바 있다.

스포츠 서울에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이날 김연아는 안무 중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동작을 보여 화제가 되었다. 아이스쇼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에 대해 묻자 김연아는 "안무 중 손가락으로 V자를 나타내 보였다"며 "나도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안무가인 데이비드 윌슨과 이야기하며 평화를 뜻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V사인에 담긴 의미를 고백했다.

이어 "사진 찍을 때만 하는 자세라서 조금 쑥스러웠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손가락으로 V자를 내밀었다"며 색다른 안무에 대한 느낌을 덧붙였다." 김연아는 새 갈라 '이매진: 뒷이야기'로 'V 안무 쑥스러웠다'고 전했다.

●사진은 존 레논의 이매진에 맞춰 안무를 하던 도중에 손으로 V사인을 보여주고 있다.

2. V자 사인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승리의 사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의 기사에서처럼 서양에서는 V 사인이 평화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60, 70년 대 크게 유행했던 이 사인은 대중들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졌다. 하지만 v 자 사인이 실제로는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오컬트 사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v자 사인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18세기 일루미나티가 창립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보아야 한다. V 사인은 일루미나티의 창시자인 Adam Weishaupt의 사탄의 "다섯 가지 법"과 연관되어 있다. 로마 숫자로 V는 숫자 5를 의미하며, Adam Weishaupt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V 사인을 "(사탄의) 다섯 가지 법"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V는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

존 레논의 대표곡 이매진(Imagine)에 맞춰

V자는 사탄에게 경의를 표시

발라 신앙과도 연관이 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6번째 문자인 (와우, WAW) 또는 바브(VAV)로 발음)는 못(nail), 핀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사탄 숭배자들 사이에선 'The Nail'이 사탄을 의미하는 비밀스런 명칭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사탄을 의미하는 또 다른 사인 Pentagram(오각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숫자 5를 의미하고 있는 V 사인은 프리 메이슨과 마녀들 사이에서 사탄의 은총을 받거나, 혹은 사탄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3. 레미제라블과 이매진(Imagine) 그리고 V 사인은

김선수 자신이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안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윌슨의 선택적인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최근 김연아의 피겨 안무에 사용되고 있는 음악들과 동작들이 일루미나티의 상징과 어전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

a. 레미제라블과 프랑스 혁명

김연아의 성공적인 재기를 알려준 '레미제라블'은 일루미나티 문화가로 알려진 빅토르 위고의 작품이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프랑스 혁명은 일루미나티가 성공한 첫 번째, 정치 사회적 변혁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혁명은 타락한 왕조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상(New World)'을 세상의 질서(New World Order)를 만들어 간다는 일루미나티의 어젠더가 최초로 역사 속에 실현된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프랑스 혁명인 것이다.

b. 존 레논의 이매진(Imagine)과 New World Order

김연아의 새로운 갈라에 사용된 '이매진'은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의 대표곡으로 일루미나티의 이상(New



World Order에 대한 비전)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노래로 알려져 있다. 이 노래는 일루미나티의 제전으로 치러진 지난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도 등장했었다.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다.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노래...

Imagine there's no heaven ?If's easy if you try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자, 시도해보면 그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 No Hell below us / Above us only sky (우리 아래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만 있다는(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생각을 해보자), /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을 위해서 살아가는(내세를 생각지 않는)세상을 상상해보자)

Imagine there's no countries (국가들이 사라진 세상(세계정부에 모든 국가들이 흡수된 세상)을 상상해보자), / It isn't hard to do / Nothing to kill or die for No religion too(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없는, 종교도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보자),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I wonder if you can(모든 사람들이 평화

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지요?), No need for greed, no hunger A brotherhood of man (욕심도 굶주림도 없는, 형제에만 존재하는(메이슨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형제단이라 부르지 않는가?)),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함께 공유하는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나를 공상가라고 할지 모르겠다). / But I'm not the only one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다(은근히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협박하는 느낌이 든다)).

I hope someday you'll join us(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 처형될 것이다)).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것이다. (일루미나티의 지배 아래 하나가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New World Order인 것이다)).

검술의 핵심은 단련된 몸으로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이다. 눈으로 상대방의 감각을 읽고 순간적인 동작으로 머리 손목 허리를 쳐 심판관의 승이라는 것 발을 얻는다. 유단자의 검술은 뿌리로 부터 온갖 힘을 다해 진액을 빨아올리는 과목의 열매처럼 파나는 훈련의 결과로 얻어 지는 것이다.

c. 이매진과 V 사인

일루미나티의 이상을 노련한 존 레논의 대표곡 이매진(Imagine)에 맞춰, 사탄에게 경의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손 동작 V를 보여준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어 울리는(?) 안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래와 안무가 가진 오컬트적인 의미를 알 수 없는 김연아 선수가 '평화의 사인'이란 말에 속아 사탄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이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연아 선수 뿐 아니라 모르고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조차 누구나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에게 이용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행사 때나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며 손가락으로 V자를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미국 수정교회 주일예배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열마전 미국의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가 주일예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수정교회는 1955년 로버트 H. 슬러 목사에 의해 창립된 이래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특히 30년 전 건축된 예배당은 아름다운 유리벽과 세계에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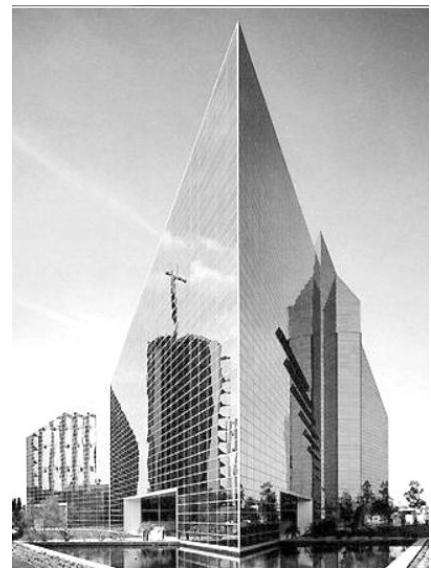
큰 파이프 오르간으로 유명했으며, 이곳에서 촬영되어 온 주간 TV 설교 방송 '능력의 시간(Hour of Power)'은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이날 예배를 끝으로, 개신교회의 상징과 같았던 예배당에서는 더 이상 개신교회 예배가 아닌 가톨릭 미사가 드리지게 됐다.

수정교회는 슬러 목사의 은퇴 후 자녀들 간의 교회 지도권을 둘러싼 다툼과 이로 인한 교인 수 감소, 재정 악화로 인해 결국 2010년 파산에 이르렀으며, 1년여 뒤인 2011년 말 교회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 가든 그로브(Garden Grove) 지역 교구에 매각됐었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 드리진 마지막 예배에는 2천여 명의 교인들이 모였으며,

슬러 목사의 손자인 바비 슬러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역을 대표하고 있는 존 찰스는 앞서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교인들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떠나는 것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있지만, 이를 통해 교회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나 전 세계에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가 전파해야 할 교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는 수정교회 뿐만 아니라 소바주의에 몰든 반영신학과 자기만족을 위해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담임목사 은퇴 전별금 변목으로 교회가 퇴직금 15억, 주택구입비 10억, 증여세 8억 4천, 등 교회가 김 목사의 은퇴를 위해 33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들은 수정교회를 교훈삼아 이 빼아픈 반성을 통해"다시 복음으로(Back to the Gospel)로 돌아갈 때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고사성어(故事成語)

- 기렴주구(街敍誅求)** 세금을 혹하게 받고 강제로 청구하여 국민을 못 살게 구는 일.
- 각골난망(刻骨難忘)** 남의 은혜가 마음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아니함.
- 각주구검(刻舟求劍)** 옛날 楚(초)나라 사람이 나루를 건너다가 물속에 칼을 떨어뜨리고 그 떨어진 장소에 표를 해놓는다고 뱃전을 깎아 두었다가 그 표지 밑의 물에 들어가 칼을 찾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말.
- 간담상조(肝膽相照)** 자신의 간과 쓸개를 보여 주듯이,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가까이 사귄다는 말로, 매우 가까운 사이를 이룸.
- 감정선갈(甘井先竭)** 맛이 좋은 우물은 길여가는 사람이 많아 빨리 마른다는 말로, 재능있는 훌륭한 사람이 일찍 쇠잔함을 이르는 말.

- 감지덕지(感之德之)** 덕으로 느낀다. 곧 매우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
- 감탄고토(甘香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사리에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싫어한다는 뜻.
- 강노지말(強弩之末)** 원문은 "강노(強弩)의 끝은 비단조차도 뚫지 못한다"로 강한 활로부터 나온 화살도, 최후에는 힘이 없어져, 노획(魯縞:노에서 나는 고운비단)조차도 뚫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전(轉)하여, 강대한 힘도 최후에는 쇠퇴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어 버린다는 말이다.
- 개과천선(改過遷善)** 허물을 고쳐 착하게 됨.
- 개문납직(開門納職)** 문을 열고 도적을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말로, 제 스스로 화를 만듦을 비유.

다음호 계속

[동정]

WCC부산총회 철회 제4차 집회 알림

- 주님의 은총이 섬기는 교단과 산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WCC부산총회 철회를 위한 명성교회 앞 집회(3차, 7월 1일 실시)에 참석하여 주신 각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총회 임원 및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수고와 희생이 한국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십자가의 도를 지킬 수 있기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 위의 제목과 같이 WCC부산총회



이범성 목사
한보협 대표회장

를 철회시키는 이 문제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으므로 협의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제4차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오니 기도와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1)일 시: 2013년 8월 2일(금) (오후 3시 ~ 5시까지)
- 2)장 소: 서울 강동구 전철 5호선 명일역 4번 출구 앞.
- 3)참석인원: 각 교단에서 10명 이상 참석 부탁드립니다.
- 4)집회내용: (1)WCC관계 및 WCC부산총회 철회축구 (2)감삼환 목사 WCC 한국준비위원회 대표회장 사죄축구. <교통편 안내> (지하철): 지하철 5호선 명일역 4번출구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사무실(02-2608-2190)로 문의 바랍니다* http://hankibo.co.kr

■ 칼럼 ■

유단자의 눈



서영웅 목사
류리탄장로교회 / (성암이사)

종북 좌파세력을 키워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대공면에서 철저하고도 강력한 국가 정보조직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초단도 되지 못 한자들이 국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국가 발전 저해는 물론 국민의 불안감만 증대 되는 것이다. 지나간 정부들은 수많은 재정지원을 북쪽에 주면서도 허리 굽은 자세로 대화를 못해 하는 모습들은 국가의 부끄러운 일이다. 정치인 모두가 상대의 전략전술을 예리하게 파악해 철저히 대처하여 무릎 꿇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폭 넓은 기량으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방도시를 홀로 걸으며 서민경제를 체합하는 정객이라면 국민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축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창 21:19)

밝은 눈은 생명을 살리고 변역과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지향하는 희망정국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강력한 대응책을 보완하여 산재해 있는 좌경 종북 세력들을 완전 소탕하여 안정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일부야권에서 국정원을 해체 하라는 프랑카드를 내걸고 좌파조직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도 정부기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구를 의심하며 무엇 때문에 그러한 선행 프랑카드를 철회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 경찰은 즉시 그러한 선행 프랑카드를 철회하고 배후 세력을 체포 조치해야 할 것이다.

힘이 없는 국가조직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긴인목으로 정책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선정해 발전 사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일터 복음화로 하나님나라 임하게!"

한직선, '제11회 공의와 사랑실현 구국기도회' 개최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회장 주대준 장로, 이하 한직선)는 18일 종로구청 대강당에서 '제11회 공의와 사랑실현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한직선 구국기도회는 각 지역연합회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6월 18일 여수연합회를 시작으로 7월 29일 과천청사연합회 기도회까지 이어진다. 주대준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종근 집사(서울시청선교회)의 기도, 정세량 장로(한직선 이사장)의 '대한민국교회 제1회 속기록(48.5.13)' 낭독, 동승교회 중창단의 <성도들이 행진할 때> 특송, 마정열 목사(월령엔젤스 대표)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엡1:3~14)'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마정열 목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종종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다"면서 "그럴 때 마다 예수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려보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마 목사는 "나의 위치와 신분이 항상 예수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깐 삶이 강박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그럴 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면서"세상에서 성도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긴 자들이다. 이긴 자들의 모습은 어느 자리에 있든 밝고 명량하다. 우리는

주 안에서 공급받는 생명력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 목사는"사역의 근원 또한 예수그리스도이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데 있다. 그 분이 공급해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구국기도회는 방인석 집사(종로구청선교회 회장)의 인도로 '사회공의실현', '나라발전', '민족복음화', '한국교회의 복음능력 회복'을 위해 통성기도로 진행했다.

제11회 공의와 사랑실현 구국기도회는 다같이 '직장선교의 노래'를 제창한 후에 이영환 목사(한직선 지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종교교회에서 공직자선교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10월 12일에는 대전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제28회 직장선교예수제'를 개최하며 같은 달 29일에는 청와대선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한직선 정기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종교교회 6층 예배실에서 중보기도회로 진행된다.

한교연, 홍콩·심천서 세계한민족선교대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은 지난 7월 8~11일 홍콩과 중국 심천에서 한민족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열방을 향한 선교적 과제를 모색했다.

한교연 선교위원회(위원장 이동석 목사)가 주최하고 CBS기독교방송이 주관한 이번 세계한민족선교

대회는 전세계에 흩어진 모든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한인 선교사를,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모든 평신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가슴 깊이 확인하는 한편 전세계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함께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열방을 향한 한민족의 도약”을 주제로 3박4일간 열린 이번 선교대회에서 대회장 박위근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인류 구원을 위한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소통의 메신저로서 섬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여 받은바 세상 가운데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하며, 인종과 나라, 세대, 계층, 정치, 이념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약자와, 억눌린 자, 소외된 자를 배려하고 보듬어 안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콩동신교회에서 8일 오후 7시에 열린 선교대회 개회예배는 대회장 이동석 목사(한교연 선교위원장)의 사회로 박위근 대표회장의 대회사, 김성준 목사(홍콩동신교회)의 환영사, 김형민 목사의 기도과 심대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김효일 박사의 축사, 대회선언문 낭독, 리학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대회선언문 전문 첨부파일〉 둘째 날인 9일에는 장소를 중국

심천중앙교회로 옮겨 선교대회 및 세미나가 열렸다. 1강은 ‘동북아 선교전략’을 주제로 김성규 목사(운주교회)가, 2강은 ‘모슬렘 선교전략’을 주제로 김진욱 목사(인천교회)가, 3강은 ‘학원사역에 대한 선교전략’을 주제로 김형민 목사(대학연합교회)가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셋째 날인 10일에는 심천중앙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류종필 목사(심천중앙교회)와 김홍일 목사(중국 운남성)로부터 선교보고를 받았으며, 두 선교사에게 소정의 선교비와 중국어로 된 전도용 성경 2백권을 전달했다. 한편 한민족선교대회는 마지막 날 수요일 배와 시상식을 끝으로 폐막했다.

〈다음은 사상자 명단〉 세계 선교상 김진욱 목사(인천교회) 김성규 목사(운주교회), 한민족선교상 이동석 목사(선교위원장), 교육 선교상 김형민 목사(대학연합교회), 감사패 김성준 목사(홍콩한인동신교회) 유필종 목사(중국심천중앙교회), 인권상 김효일 목사(노인인권운동),

몽골목회자수련회 및 이단사이비세미나 8월 26~31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

한교연은 한민족선교대회에 이어 오는 8월26일부터 31일까지 몽골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수련회 및 이단사이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교연과 몽골복음주의협의회간에 체결된 선교MOU에 따라 진행되는 첫 사업으로 한교연은 5박6일동안 몽골 복음주의협의회 산하 목회자 400명을 대상으로 목회자 수련회 및 사이비이단세미나를 주관해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한교연은 게르(몽골텐트)교회 5개 동을 건립하기 위해 CBS 기독교방송과 함께 선교후원 모금을 전개하기로 했다.

중남부아프리카선교사대회 개최 12월 9~20일 남아공 케이프타운

이어 12월 9일부터 20까지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제10회 중남부아프리카 한인선교사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선교사대회에는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는 3백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하여 선교보고와 교육 및 세미나 등으로 진행되며 한교연은 직전대회회장 김요셉목사와 1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이들 한인선교사들의 영적 재부흥을 돕고 노고를 위로하게 된다.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애가 4:3). 두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미7:3).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머리를 땅에 박고 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지난 2011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1,929만 5,844건이었다. 이 중에 법원이 다른 소송 사건은 628만 7,833건이었다. 그 중에 보안 사건은 150만 3,696건이었다. 이러한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종교별 분류나 통계는 없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 한국교계를 둘러싼 소송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린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건들만 해도 수도룩하다.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에 분란이 있었고 그 지금은 두 개의 단체로 나누어 졌는데, 그 중에 한 단체는 이단 관련성 성명서를 낸 다수의 교수들을 법적 조치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단체는 전 사무총장이 전 대표회장을 고소하였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찬송가공회와 제단법인 찬과 비법인 찬 사이에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교단에서의 법적 갈등도 있었는데, 감리교는 지난 5년간 감독교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있었으며, 기하성도 수년 전 교단 통합 후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고, 기침과 기성 교단은 총무 선임 문제로 법적 공방이 있었다. 예정합동 중앙교단도 설립자 측과 임원진 사이에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쟁의 압권은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예정 합동 교단의 고소? 고발이다. 지난 해 제9회 총회에서의 불평사나운 문제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총회장 측이 공방을 벌이더니, 목사 장로 기도회를 앞두고 비대위의 종료

와 해산을 선언함으로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근자에는 총회장 측이 비대위 측 인사 28명을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화해에 찬물을 끼얹었다. 참 슬픈 일이다.

개 교회에서의 고소?고발도 난무하고 있는데, 목동??교회, 광?교회, 분당??교회, 여의도??교회, 강북??교회 등에서 교회와 지도자들과 관련하여 고소 사건들이 벌어졌거나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이를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성도들의 고귀한 헌금으로 조성된 재정이 영혼을 구원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라고 한다.(고전6:8)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잘못된 것은 믿음과 대화로 해결할 생각은 없고, 결핍하면 사회 법정에 찾아가 형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비신앙적 행위이다. 물론 교회 속에서 시시비비가 있고, 때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런 것도 참지 못한다면, 참다운 예수의 제자라고 하기 어렵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점들을 우려하여 이미 지난 2008년 ‘한국기독교교회해중재원’이 생겨,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불법은 하늘을 찌를 듯, 머리를 땅에 박고 울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이미지 추락과 성도간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함으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오죽하면 신대원생들도 교단 지도자들의 부정적 행태 때문에 신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교회가 깨끗하여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 구성원 사이에 불신과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불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성경에서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자들에게도 허물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뿌렸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 것이 낫지 아니하니’고 힐문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이 그만큼 ‘불의’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며, 교회 안에서 필요 이상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다. 이제라도 세상 법정에서 공방을 펴는 모든 쟁론들을 거두어들이고, 정말로 우리 속에 더러운 욕심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일이다.

성경에서는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오늘날도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으로 듣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치실 것이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미6:12).

한기총, 신앙에 기초한 “노인이 행복한 시대” 구현

“기독실버신우회” 통한 복음선교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와 대한노인회(회장 이 삼)가 11일(목) 오전 7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서울시 중구 을지로)에서 ‘기독신우회 활성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독신우회’는 지역사회발전과 연합을 목적으로 하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경로당 노인 복지 향상 및 노인의 행복 실현을 추구해 나가게 된다. 또한 노인 행복을 위한 봉사과 섬김의 단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인근 경로당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하기로 하였다.

기독신우회 중앙회의 회장에는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공동회장에는 하태초 장로(한기총 공동회장), 이승렬 목사(한기총 공동회장), 김평일 장로(가나안농군학교), 강봉섭 지회장(대한노인회 대전 동구 지회), 고문에는 서

원석 회장, 이소운 사모(성원제강그룹), 최성원 회장(백강그룹)이며, 운영위원장에는 오준영 목사(전국노인노숙인사랑연합회), 사무국장에는 두재영 목사(사랑과

실천공동체 대표)가 각각 위촉되었다.

기독신우회의 추진사업으로 오는 10월 10일(목)에 창립예배와 기도회를 겸한 신앙 포럼을 진행

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들이 담당하기로 했다. ‘기독실버신우회’의 조직 관련 문의: 한기총 교육국 02)745-0191



피종진 목사 7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08
010-5255-7777
jongjin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1(월) 오후 오산리화자살기념금식기도원(원장 국해원 목사) ☎(031)947-0091
주최: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제178차 해외성회(178th Overseas Assembly)
1(월)~ 4(목) 미국(U.S.A) Nyskc Movement 2013(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교세 목사, HO 뉴욕)
장소: 미국 아리조나 피닉스 Northern Arizona University 대강당
미국(U.S.A) 캘리포니아 에나-하임제교회(이선자 목사) ☎(714)220-7660
11(목)~12(금) 양수리수양원(원장 피종진 목사) ☎ (031)772-6015
주최: 예사랑부흥회의회(대표회장 조유식 목사)
14(주) 오후 일산 능력비전교회(지미숙 목사) ☎ 010-6366-2548
15(월)~17(수) 서울 임마누엘교회(최홍순 목사) ☎(02)436-1777
19(금) 오전 한국기독교부흥지도자회(대표회장 이종만 목사)
장소: 서울 성락교회(원로 박태희 목사, 담임 지형은 목사) ☎(02)467-8105
19(금)~21(주) 태국(Thailand) 16개 교회 연합성회(대회장 신홍식 선교사) ☎ 661-171-9106
22(월)~24(수) 충주 금식수양원(원장 김승수 목사) ☎(043)853-3990
27(토) 오후 오산리화자살기념금식기도원(원장 국해원 목사) ☎(031)947-0091
주최: 21C세부흥사회의회(대표회장 성경모 목사)
29(월)~8.1(목) 서울 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조강수목사 (CBS TV 비전특강, CTS TV 빛으로 소금으로)

영광교회 환자 치유 대성회

할렐루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도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도 치료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강수 목사

- 영광교회 담임회장
- CBS TV 비전특강 강사
- CTS TV 빛으로 소금으로 강사
- 웨신종회 차기
- 웨신종회 신학교 이사장

환자치유대성회

일시: 2013년 7월 28일(주일)밤~ 31일(수)밤까지

시간: 새벽 4시30분, 낮 10시30분, 저녁 7시30분

장소: 영광교회 (032-575-165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인천 서구 가좌4동 4-24 번지 ☎. 032) 575-1654